

장편극영화시나리오

# 무방비도시

(無防備都市 / Open City)

제작·기획 : 전호진  
각본·감독 : 이상기

제작사 : 아이비전엔터테인먼트(ivision Entertainment)

\* **광역수사대** - 서울 같은 대도시와 경기도 등의 도 단위 지방경찰청에만 존재하고 있는 특별수사대. 독립적인 기획수사를 통해 강력, 조직, 지능범죄 등의 최악의 강력범죄 등을 다룬다. '유영철 연쇄살인' 같이 사회적 이슈로 부각한 초강력범죄는 대개 광역수사대가 담당 한다. 강력반 3년차 이상에다 무술 3단 이상의 민완 형사들 중에서 대원을 선발한다. '한국의 FBI'라고 해도 손색없을 정도로 대한민국 제일의 최강 수사대다.

#### < 주요 등장인물 >

**조대영** : 광역수사대 조직범죄수사2반 형사. 범죄자를 보면 억제할 수 없는 분노가 치미는데, 그만의 슬픔이 날카로운 송곳이 되어 가슴 속 깊은 곳에 꽂혀있기 때문이다. 호랑이의 안광(眼光)을 닮은 슬픈 눈을 지녔다.

**백장미** : 한국과 일본을 오가며 소매치기 행각을 벌이는 국제적 범죄자다. 소매치기 조직 '삼성파'를 키우기 위해, 다른 조직과 혈투마저 불사하는 배짱을 지녔고, 형사들까지 이용하고 유린하는 팜므파탈이다.

**강만옥** : 소매치기 전과 17범의 여성. 57세. 업계 최고의 기술자로 명성을 날렸었다. 교도소에서 정신감정을 받았을 때 절도 중독증(Kleptomania) 판명까지 받았지만, 뒤늦게 소매치기를 끊어보려고 노력 중이다.

**오반장** : 성명 오연수. 광역수사대 조직범죄수사2반 반장. 과거 소매치기전담반(일명 '회사반')에서 맹활약. 2000년 전담반 해체 후, 남대문서 강력반에서 근무하다 경위로 진급, 광역수사대 반장으로 발령받아 온다.

**손용수** : 소매치기조직 <삼성파>의 '기계'. (\*기계-사람들의 지갑이나 돈을 직접 터는 소매치기 기술자). 40대 후반. 최고의 기계가 되고 싶지만, 언제나 실력이 2%부족하고 뻥땅을 잘 쳐 장미에게 인정받지 못한다.

**최성수** : 삼성파의 '안테나'. (\* 안테나-기계가 소매치기 할 때 망을 보는 조직원. 형사들에게 검거 당할 것 같으면 회칼 등을 휘둘러 기계의 도주로부터 확보한다.) 백장미를 여자로 좋아하지만, 늘 소외당한다.

**이원종** : 삼성파의 '바람'. (\* 바람-기계가 소매치기 할 때 곁에서 범행을 돋는 역할.)

**테라지마 스스무** : 일본 오사카 야쿠자. 장미가 일본원정소매치기를 할 때 도움을 주는 등, 오랜 동업자관계.

**정연옥** : 동대문과 명동 등지의 소매치기 구역을 관리하는 자로서, 이런 자들을 통칭해 '야당'이라 부른다.

**프랑켄** : 광역 수사대 형사. 프랑켄슈타인을 닮은 외모 때문에 '프랑켄'이라는 별명을 지녔다. 유도 선수 출신

**막내형사** : 광역수사대 형사. 고릴라 같은 덩치와 인상 때문에 '킹콩'이라는 별명을 지녔다. 태권도5단.

**조수현** : 대영의 누나. 나이 마흔이지만 시집도 못 갔다. 보험설계사하며 생활을 꾸려가는 좋은 누나다.

**김선철** : 대영의 오랜 친구. 그 외 / 동대문과 명동 등의 소매치기 조직들. 광역수사대 형사들.

## < ACT 1 >

### 1. 1970년대 중반. 서울 동대문구 전농동. D

전파사의 찌그러진 스피커에서 음악이 흐른다.

레너드 스키너드(Lynyrd Skynyrd)의 'Simple Man'이 흐르는 가운데...

전파사 옆 느티나무 아래 평상에 앉아 갓난아기를 재우는 여인의 뒷모습이 보인다.

어디선가 날아온 민들레 훌씨가 여인을 스치더니... 하늘로 날아오른다.

### 2. 서울 도심 밤거리. Night(이하 N)

훌쩍 시·공간을 뛰어넘어... 하늘로 날아온 민들레 훌씨...

아스팔트 위로 내려앉더니, 훌씨를 가득 품은 민들레로 빠르게 자라난다.(C.G)

'조대영' 형사의 차량이 민들레를 스쳐 질주해 간다.

곧 이어 광역수사대 차량 두 대도 스쳐 지나간다.

그 여파로 민들레 훌씨 하나가 다시금 하늘로 날아오른다.

카메라... 민들레 훌씨를 따라 하늘로 상승하면 도심의 야경이 펼쳐진다.

시나브로... 도심의 야경 위로 비가 내리기 시작하면...

Title : 무방비도시(無防備都市/Open City)

### 3. 강남구 압구정동 Bar '티볼리' 앞. 외부. Night(이하 N)

비가 내리는 가운데, 정복 경찰들이 포진해 있고, 관할구역인 강남서 차량들이 즐비하다.

정복 경찰들이 통제하는 가운데, 그 앞으로 세 대의 차량들이 급정거한다.

호랑이가 포효하고 있는 마크가 새겨진 광역수사대 차량을 선두로...

두 대의 승용차에서 광역수사대 형사들이 내린다.

조대영, 지금까지 듣고 있던 'Simple man'을 끄며, 차에서 내린다.

'광역수사대(WAIS)'라는 글자가 새겨져 있는 점퍼를 입은 형사들.

\* WAIS : Wide Area Investigation Squad

뉴욕경찰(NYPD)들이 입고 다니는 것과 같은 종류의 우비 겸용 특수점퍼다.

경찰들, 광역수사대 형사들을 보고 경례를 하며 확인절차 없이 통과시킨다.

### 4. Bar '티볼리' 내부. N

두 명의 여종업원이 성폭행 당한 후 도끼로 살해당한 사건현장.

강남경찰서 형사들이 수사를 하다가 들어오는 광역수사대 형사들을 본다.

강남서 형사 반장이 다가와 인사를 한다.

- 강남서반장 (선두에 선 대영에게) 광역수사대 직원들이시죠?  
제가 현장을 책임지고 있는 강남서 강력3반장입니다.
- 조대영 (까칠한 표정으로 현장을 둘러보며) 이제 책임지실 필요 없어요.  
(시계를 보며) 23시 18분부로... 경찰청 훈령 432호 광역수사대 운영규칙에 의거...  
현장은 광역수사대가 책임지고 지휘합니다.
- 강남서 형사들 얼굴에 불만이 떠오르지만... 어쩔 수 없이 물러난다.  
사체에 접근해 현장을 장악하는 광역수사대 형사들.  
사체가 담겨 있는 검정 비닐백을 들여다보면, 여성의 사체 두 구가 보인다.
- 프랑켄 어때? 빨간모자 그 새끼 맞지?
- 조대영 (사체를 살피며) 성폭행 한 후 도끼로 난자하고 살해... 음부를 담뱃불로 지지고... 자상을 입힌다... 대한민국에 이렇게 잔인한 새끼가 빨간모자 말고 누가 또 있겠어?
- 막내형사 (대영에게) 살해당한지 얼마쯤 됐을까요?
- 조대영, 부패한 사체에서 나오는 진물을 가리킨다.  
보면, 구더기들이 사체에 기생하며 꿈틀대고 있다.  
그 주위를 왕왕거리며 날고 있는 금파리와 쉬파리들.  
더 자세히 보면 파리가 낳은 알과 구더기들을 잡아먹고 있는 벌레들.
- 조대영 (벌레 한 마리를 핀셋으로 집어서 들어 보이며) 막내야 이게 뭐지?
- 막내형사 '송장벌레' 아닌가요? 송장에 불어서 구더기 잡아먹는다는...
- 조대영 맞아. 사체가 부패하기 시작하면 제일 먼저 금파리와 쉬파리가 몰려들어.  
이 파리들이 사체에서 흘러나온 진물을 영양분으로 알을 깨고 거기서 구더기가 나오지. 여기 까지 걸리는 시간이 통상 2주야.
- 막내 아, 그러니까 그 파리알이랑 구더기를 먹는 송장벌레가 모여들면 2주가 지난 거군요.
- 대영의 명석한 수사력에 역시나 하는 표정을 짓는 강남서형사들

## 5. 일본 오사카 지하철역 구내. N

일본 오사카의 야경 속에 보이는 지하철역의 모습 위로... 자막 : 일본 오사카

흔잡한 지하철역 구내에서 어느 일본여성을 쫓아가는 소매치기조직.  
기계(돈을 직접 터는 기술자)의 역할을 맡은 여자가 눈에 띈다.

여자는 한국에서 일본으로 원정 온 소매치기 ‘백장미’다.  
백장미 곁에선 오사카 야쿠자인 ‘테라지마’가 바람을 잡고...  
한국에서 백장미가 데려온 ‘최성수’가 안테나 역할을 맡아 망을 보고 있다.

백장미... 계단으로 올라서는 일본여성을 따라 올라가며...  
여성의 핸드백을 두 손으로 잡더니... 지퍼를 열고 지갑을 꺼내려는데...  
여성이 돌아보다가... 백장미의 손목을 움켜쥔다.  
백장미 씩 하고 웃더니... 지갑을 놓고... 손목을 빼려고 한다.

일본여성 (일어) 소매치기야! 도와주세요... 소매치기예요...

백장미... 여성을 떼어 놓으려고 해보지만... 끝까지 매달린다.  
일본 남성들.. 몇 명이... 여성을 구하고 백장미를 잡기 위해 다가선다.

백장미 (최성수와 테라지마를 향해 큰 목소리로) GO!

그걸 신호로 백장미 곁을 호위하던 최성수가...  
양복상의 품속에 숨겨 두었던 접이식 텁을 꺼내 ... 텁날을 펼치더니...  
백장미의 손목을 잡고 있던 여성의 팔을... 사정없이 내려친다.  
일본으로 원정 다니는 소매치기 세계에서 전해 내려오는... 속칭 ‘가지치기’.  
가지치기로 인해 여성의 팔 피부가 찢겨 나가며 피가 뿐다.  
비명을 지르는 여성...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는 계단 위 인파들.

연이어 테라지마가.... 텁을 들어... ‘빠가야로’라는 고함과 함께....  
계단 벽에 붙어 있는 철제손잡이를 연속해서 타격한다. ‘쾅쾅쾅...’  
그 소리에 놀라, 한 걸 같이 바닥으로 엎드리는 일본인들.

백장미 (그 모습을 보며) 쪽바리 새끼들... 겁대가린.... 쥐새끼들처럼 많아갖고... 까르르...

계단 위... 숨겨져 있는 CCTV.

## 6. 경찰청 내 대회의실. D

수사과장 (앞 씬의 CCTV 녹화된 화면을 보며) 지금까지 보셨던 바와 같이, 일본 오사카에서 한국인들로 구성된 원정소매치기조직단의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일본 경시청의 추정으로는 CCTV 속의 인물들로 보이는 소매치기 조직이, 2000년부터 78회에 걸쳐 9200만엔,,, 한화 9억 2000만원 상당을 소매치기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에 일본 경시청은 수사협조를 요청해 왔습니다.

경찰청장 이 사건에 대한 수사 대책은 세워져 있나? 수사적임자가 누구야?

이번에는 스크린에 ‘오연수’ 경위의 얼굴이 떠오른다.

수사과장 수사직임자는... 오연수 경위입니다. 과거 서울지방경찰청 ‘소매치기전담반’에서 근무했습니다. 현존하는 국내 최고의 소매치기 전문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 7. 도심의 밤거리. N

쾅! 조직범죄수사 2반 형사들이 차량으로 충돌해 조폭들의 차를 막아선다.  
3대의 조폭 차량은 달아나려고 하지만, 형사들의 차량이 막아서 꼴깍 못한다.  
차에서 내린 다섯 명의 형사들은 각자의 무기로 조폭 차량을 박살내 버린다.  
조대영, 차로 뛰어 올라 발차기로 앞 유리를 박살내자... 조폭들은 도주를 포기한다.

빈틈을 노려 덤벼드는 조폭들, 격투가 벌어진다. 회칼과 일본도등을 뽑아드는 조폭들.  
조대영, 차에서 삼단봉을 꺼내 일본도를 든 조폭두목을 박살내기 시작한다.  
다른 형사들도 각자의 무술특기로 격투를 벌여 조폭들을 제압한다.

## 8. 광역수사대 내부. 조직범죄수사 2반. D

(인서트) 수사대 건물 전경.

검거한 조폭들이 한쪽 벽 앞에 서 있다.  
조폭들이 서 있는 바로 앞 테이블에는 압수한 흉기 등, 증거품이 놓여있다.  
팬티만 걸치고 있는 조폭들은, 저마다 화려한 문신들이 드러나 있다.

조대영 (디카로 사진을 찍으며) 지금부터 벽을 보며 깡패로 살아온 인생을 반성한다. 뒤로 돌아!

일제히 뒤로 돌아서서 벽을 마주보는 조폭들.

조대영 (두목의 문신을 손바닥으로 문지르며) 야... 이거 문신 봐라... 이게 말로만 듣던 천만원짜리  
문신이구나... (문신을 꼬집으며) 노점상들한테 매일 만원씩 뻥 뜯어서 이런 낙서나 새기  
고... 막내야...다리미 갖고 와라... 확 다려서 지워 버리게....

조대영의 너스레에 깔깔 대는 형사들의 모습이 보인다.  
이때 광역수사대 대장이 40대 초반의 남자를 데리고 들어온다.  
대장에게 경례하는 형사들... 대영, 대장 뒤의 남자를 보더니 깜짝 놀란다.

조대영 (놀라며) 연수 형님... 혹시 새로 오신다는 반장님... 형님이었어요?

오연수 (씨익) 그래.... 깜짝 놀라게 해주려고... 대장님한텐 비밀로 하라 그랬지...

프랑켄 (상황파악 중) 대영아... 반장님하고 어떻게 아는 사이야?

**조대영** 연수 형하곤... 아니 반장님하곤... 여기 오기 전에... 남대문에서 같이 근무했어.

대영과 오연수, 반가워하면서도, 웬지 뭔가 데면데면한 느낌이다.

**대장** 오늘... 조폭 애들도 다 잡아들였고... 오반장도 새로 왔고... 기분이다... 내가 한턱 쏈다.  
최대포네 가서... 껍데기에 삼겹살 싸가지고... 소주 한잔... 어때?

화기애애해진 분위기... 다들 일어서 나가려는데...

**프랑켄** 대장님... 드릴 말씀이 있는데요...  
(다들 돌아보면) 껍데기엔... 목살을 싸야... 더 맛있거든요...

프랑켄 때문에 목살에 핏대 오르는 형사들.

## 9. ‘팬스타드림’호 갑판 위. N

‘팬스타드림’호가 부산국제여객터미널을 향해 다가가고 있다.  
갑판 위 난간에 기대... 담배를 피우고 있는 백장미.  
해운대 야경을 바라보고 있는 장미의 생머리가 바람에 날려 섹시한 분위기를 더한다.  
백장미를 지켜보던 40대 중반의 일본남성이 다가선다.

**일본남** (일본어) 배 위에서 바라보는 해운대 야경은 예술이군요.

**백장미** (흘낏 보며) ... ... ...

백장미, 남자를 훑어보면... 양복상의 주머니에 꽂혀 있는 고급 만년필이 눈에 들어온다.

**일본남** 한국여행은 처음이신가요?

**백장미** (일어) 저는... 한국사람입니다.

**일본남** 죄송합니다. 분위기나 패션이 일본여성 같아... 제가 실수했군요.  
(잠시 장미의 눈치를 살피다) 한국여행이 처음이라 그런데... 괜찮으시면... 가이드 좀 해주시겠어요... 보수는 원하시는대로 얼마든지 드리겠습니다.

백장미... 머리카락 한 개를 뽑아 엄지와 검지 사이에 묶어 실처럼 연결한다.

**백장미** 저.... 혹시 야마구치조라고 들어보셨나요? 제 남편이 거기 중간보스인데...  
(뒤를 가리키며) 마침 저기 오고 있네요.

일본남자 돌아보면... 쇠성수의 분위기... 진짜 야쿠자 같다.  
그런 순간을 틈타... 엄지와 검지 사이를 연결해 준 머리카락을 이용해...  
일본남자의 양복상의에 꽂혀있는 만년필을 걷어채는 백장미.  
만년필이 머리카락 사이에 걸려... 낚시 바늘을 문 둘고기처럼 떨려 나온다.  
재빨리 주머니 안으로 만년필을 감추는 장미.

일본남 (다시 장미를 향해 돌아보며) 죄송합니다. 실례했습니다.

부리나케 자리를 피하는 일본남. 쇠성수가 다가와 보면... 만년필을 내려다보는 백장미.

쇠성수 (캔 맥주를 장미에게 건네며) 장미 누님... 그거 웬 만년필이우?

백장미 (미소) 심심해서 추억의 쌍팔년 기술 좀 써먹어 봤지.

그때 음악과 함께 갑판 위에서 불꽃놀이가 시작된다.

백장미 (불꽃을 올려다보며) 옛날에 만옥 이모랑 불꽃놀이를 같이 본 적이 있었는데... 그때 만옥 이모가 이렇게 말했다. 우리 사는 게 ... 꼭 저렇게 불꽃놀이 같다고...  
(성수를 바라보며) 도착하면 만옥 이모부터 찾아봐. 작년에 보호감호 폐지 돼서... 곧 출소한 대. 앞으로 우리 사업에 꼭 필요하니까... 알지?

## 10. 기찻길 옆 최대포네 돼지껍데기집. N

프랑켄... 껍데기에 목살 싸서... 정말 맛있게 먹는다.

대장 진짜 잘 먹네... 그게 그렇게 맛있어...

프랑켄 맛으로 먹는 거 아니에요. 저는 이걸 먹어줘야 스트레스가 풀린다고요...

막내형사 아마 프랑켄 형님이 한 달에 돼지 한 마리는 먹어 치울 거에요.  
돼지를 무지 스트레스 받겠다.

막내형사의 너스레에 웃음을 터뜨리는 형사들. 하지만 전혀 웃지 않는 조대영.

오반장 (그런 대영을 느끼고 견배 제의) 대영아... 오랜만인데 한잔 해야지...

조대영 (견배... 원샷) 근데... 형님... 여기 왜 오셨어... 나... 형님... 안 보고 사니까...  
속 편하던데... 형이랑... 나... 참... 징글징글한 인연이다.

그 말에 씩하고 웃는 반장... 그러나 입만 웃지... 표정은 그대로다.

## 11.

### 대영의 집 앞. N

회식을 마치고, 집 앞 골목으로 들어서는 대영  
대문 앞에서 중년남자와 데이트 후... 헤어지는 누나를 발견한다.  
대영, 숨어서 지켜보면... 멀어져가는 남자의 차를 향해 손을 흔드는 누나.

조대영

(누나 뒤로 살금살금 다가가 안으며) 아가씨... 그림 좋은데... 우리 연애나 할까...

조수현

깜짝이야... 아우.... 술 냄새... 조대영!... 너 자꾸 누나 놀리면 죽는다.

조대영

(누나의 얼굴을 감싸 줘며) 뾰뽀한 거 티 내놔... 립스틱... 뻑 됐다.... 뻑 됐어.

조수현

(화들짝 놀라며 손거울을 본 후) 이게 뻥까고 있어... 죽는다 너...

대영의 등짝을 후려갈기는 월가닥 누나.

조대영

아이 씨... 진짜 손 매워.

그나저나 보험 그만 하고 시집이나 가서.. 마흔 넘으면 진짜 애 낳기 힘들데..

누나한테 또 등짝을 후려 맞는 대영. 하지만 정겨운 오누이의 모습.

조수현

대영아... 너 이번 주일날부터 누나랑 같이 교회 나가자.... 응?

교회 다니면 여자 친구 생겨서 장가도 갈 수 있고... 술도 끊고... 새사람 된데...

조대영

새사람? 미치겠네.. 나 아직 쌔거야.. 나... 아직까지 여자랑 한 번도 안자봤어...

누나, 조대영의 등짝을 또 후려갈긴다. 조대영의 비명이 동네방네 울려 퍼진다.

## 12.

### 충북 청주. 여자교도소 앞. D

출소하는 재소자들 중에서도 유독 눈에 띄는 여자.  
초로의 여성인데도 짧은 머리, 민소매 옷 사이로 드러난 팔뚝에는 문신이 보인다.  
험악한 인상. 금년 나이 57세, 전과 17범의 소매치기 '강만옥'이다.  
폼은 잔뜩 잡고 있지만 두부 한 모 내미는 사람 없다.  
그때 만옥 앞으로 다가와 서는 재규어자동차. 문이 열리고 누군가 두부 한모를 내민다.  
만옥, 일단 받아먹고 쳐다보면 자동차 안에 타고 있는 백장미.

백장미

(차에서 내려 얼싸안으며) 만옥이모... 고생했어... 나... 보고 싶었지...

강만옥

장미... 이 쌩년... (얼굴을 매만지며) 이 징글징글한 년.... 더럽게 이뻐졌다.  
클수록 지 엄마 판박이네...

그런 모습을 보고... 차 안의 성수도 미소 짓는다.

### 13. 일식집. D

만옥이 식사를 마치자, 담배에 불을 붙여 건네는 장미.

강만옥 (달게 피며) 장미야... 옥바라지 잘 해줘서 호강했다... 징한 신세를 으쌰야 할까?

백장미 신세 갚고 싶으면... 새로 회사 하나 만들 거니까... 이모가 기계 좀 맡아라.

강만옥 ... ... 필 있거든 함 줘봐라... 오랜만에 필 맛 좀 보자.

성수, 가지고 있던 필을 건네자, 필에서 면도날을 빼더니 입에 넣고 씹어버린다.

강만옥 (선혈이 낭자해진 입으로) 장미야... 나 다시는 필 밥 안 먹는다.

내가 또 다시 소매치기 하면... 그날이 나 죽는 날이야.

너한테 신세 진건 어떻게라도 갚을 테니까... 제발 날 그냥 내버려둬.

일어서 나가는 만옥의 뒷모습을 지켜보는 장미.

### 14. 서울 일원 폐공장 내부. N.

전에 마네킹 제조 공장으로 썼던 내부.

부서지고 찌그러지고 둑, 팔 등이 뽑힌 마네킹들이 쌓여 있어 그로테스크한 분위기다.

울고 있는 여자어린아이. 변태 새끼가 여자아이를 성폭행하려고 한다.

허리춤을 풀고 바지를 내리려는 변태. 문을 박차고 들어오는 형사들.

선두에 선 대령, 달려가 변태 새끼를 박살낸다.

내버려 두면 아예 죽일 것 같아, 형사들이 대령을 말린다.

막내형사가 공포에 질려 울고 있는 아이를 급히 밖으로 데려나간다.

### 15. 백장미가 운영하는 타투샵. 시술룸. N

(인서트) 변화가에 위치한 근사한 타투샵 전경... 한 컷 보여 지다가...

일본 남자 테라지마상의 등에 '이레즈미' 문신을 하고 있는 백장미.

시술룸 사방엔 문신 도안들이 붙어 있고, 염료들과 문신용 바늘이 진열돼 있다.

그 옆에는 초와 알코올램프가 켜져 있고, 향이 지펴져 연기가 감돈다.

한 땀 한 땀.. 바늘로 찌르면 피가 한 방울 맺히고

바늘에 감긴 명주실에서 물감이 한 방울 똑, 떨어져 피와 섞인다.

흰 천으로 그 자리를 꼭 누르면 물감색으로 물들여진 살갗.  
신성한 의식을 행하듯 문신을 하는 백장미, 이마에 땀이 송골송골 맺힌다.

테라지마 곧 있음 오사카 경찰들도 잠잠해질 것 같던데...

백장미 다음번엔 동경 쪽이 어떨까 생각중이에요.

문신을 끝내고 일어서는 백장미.  
테라지마, 몸을 일으켜 거울에 자신의 등을 비쳐본다.  
이레즈미 용문신이 살아 움직이듯 새겨져 있다.

테라지마 후지모리 선생에게 사사 받아서인지 다르군. 맘에 들어.

## 16. 광역수사대, 조직범죄수사2반, D.

불잡혀 온 어린이성폭행범.  
양 손목에 수건을 감싸고... 청테이프로 한 번 더 감은 후...  
수갑을 채워... 창문 철창에 매달아 놓았다.  
십자가의 예수처럼 매달려서... 손목이 잘리는 듯한 고통 때문에 신음하는 변태.

변태 이렇게 인권유린 해도 되는 거야... 지금까지 당한 거.... 전부 까발릴 거야.

조대영 어... 이 새끼... 봐라... 아직도 허리에 힘 존나 들어가 있네...  
너... 오늘 그냥 내손에 죽는 게 낫겠다. 막내야... 이 새끼 잡아...

막내형사가 변태의 다리를 잡아서 들어 올리자, 변태의 발바닥이 대영을 향한다.  
대영, 삼단봉으로 발바닥을 패버린다. 심한 고통에 울부짖는 변태.  
오반장, 외부에서 안으로 들어오다가, 이 광경을 목격한다.

오반장 지금 뭐하는 거야... 인권침해로 다들... 짤리고 싶어?

조대영 연수 형님... 반장 되더니... 모범경찰 되셨네... 언제부터 그렇게 인권 보호했다고..  
이거 다 옛날에 남대문에서 형한테 배운 거야.  
범죄자만 인권보호해주는 죽같은 현실이 같잖아서...  
지금 내가 피해자들 인권 보호해 주고 있는 거라고...

오반장과 대영의 팽팽한 눈싸움과 기싸움.

(시간경과) 회의 중... 성난 표정의 대영뿐만 아니라, 형사들까지 뚱한 표정.

오반장 ... 어제, 오늘, 이틀간 경찰청에서 회의한 결과...

앞으로 우리 반은 당분간 소매치기 사건을 전담하기로 했어.  
그래서 우리 반에서 현재까지 진행 중이던 모든 수사는... 다른 반으로 넘기기로 했어.

프랑켄 빨간모자는 3개월째 뺑이 치면서 쫓아다녔고.... 어린이 강간범 새끼는 이제 막 잡아서 조사하려고 하는데... 다른 반에 넘기라니요? 이게 말이 되요? 안 그러냐 대영아?

조대영 (반장만을 노려보며) ... ... ...

오반장 (대영의 시선을 외면하며) 이건 하고 안 하고 결정할 문제가 아니야.

프랑켄 아이... 씨... 소매치기가 다루기 제일 죽같은데.... 죽뺑이 치겠구만...

막내형사 소매치기 새끼들... 불잡을라 그러면... 형사고 검사고간에...  
닥치는 대로 회칼로 쑤시고 도망간데요... 내 동기도... 소매치기 잡다가...  
회칼에 척추 찔려서... 식물인간 됐어요...

이때 문자메세지 도착 신호가 울리자, 핸드폰을 확인하는 대영.  
(문자 : 빨간모자, 동대문 매미집 주변에서 잠수 타고 있삼!)

오반장 (불쑥 일어나 나가는 대영에게) 회의하다 말고 어디가?

조대영 동대문.

오반장 ???????

조대영 옷 사러! 세일한데...

나가 버리는 대영. 썰렁해지는 반 분위기.

## 17. 한정식집 / D

백장미와 최성수, '기계' 역할을 맡을 '손용수'와 바람잡이 '이원종'의 첫 미팅.

백장미 여긴 최성수.... 나랑 10년 동안 동업해온 믿음직한 친구야.  
성수야... 인사드려... 용수 아저씨라고... 우리 엄마랑도 같이 일 다니고 그랬어.  
(원종에게 악수) 백장미에요. 용수아저씨랑 오래 작업하셨던지요?

이원종 이원종... 이라고 합니다. 백사장님...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저... 회사 이름을 왜 '삼성파'라고 지으신 건지?

백장미 (미소) 삼성... 대한민국에서 젤루 돈 많이 버는 회사잖아요.

이원종      아... 그래서 삼성파구나... (씨익) 듣고 보니... 회사 이름부터 대박이네요.

백장미      (술잔을 들며) 삼성파 회사원 모두에게 귀신의 필이 꽂히기를 기원하며!

이원종      대한민국 국민들의 모든 현금은 내 돈이다!

손용수      필요하면 그냥 꺼내서 쓴다. 건배!

## 18. 동대문 의류상가 일대. N

백장미를 필두로 삼성파가 나타난다.

백장미가 눈짓으로 찍은 여자의 뒤를 따라붙는 원종과 용수.

원종이 바람... 성수가 안테나 역할을 하고 있는 가운데...

여자의 가방을 필로 가르고 지갑을 꺼내는 용수의 손.

꺼낸 지갑은 백장미에게 건네진다.

조금 떨어진 곳에서, 몰래 지켜보고 있는 한 무리의 남자들.

동대문과 명동의 소매치기 구역을 관리하는 야당 '정연옥'과...

동대문을 장악하고 있는 소매치기 조직 '쌍등이파'의 조직원들이다.

야당, 백장미를 지켜보며 '쌍등이파'의 사장인 '홍기택'에게 뭐라고 속삭인다.

## 19. 동대문 의류상가 일원. N

작업을 마친 삼성파와 헤어져서 주차장 쪽을 향해 골목길을 걷는 백장미.

그 뒤를 몰래 따라 가다가, 백장미를 붙잡는 쌍등이파 사장 '홍기택'과 조직원들.

홍기택      어이, 백장미! 웰컴 투 코리아! 오랜만...

백장미      그러게. 쌍등이는 한 봄이라는데... 용택 오빠 빵에 가서... 기택 오빠... 심심하겠다...

홍기택      미친년, 간도 크지. 감히 남의 나와바리에서...

야당 어르신 허락도 없이 설치고 다녀? (부하들에게) 끌고 가...

## 20. 동대문 의류상가 일원. 골목길. N

상점들이 철시를 해서, 인적도 없고 어두운 골목길.

골목길 초입에 '야시', '늑대', '69' 등... 매미집의 싸구려 간판만이 점멸하고 있다.

매미집이 마주 보이는 골목길... 차 안에서 잠복하고 있는 조대영.

빨간모자의 현상수배 전단을 보며 다시금 전의를 불태우고 있다.

조대영 (매미집을 바라보며) 여기서 봤다고 했는데...  
이때 대영의 시선으로 보면, 한 무리의 남자들이 여자 한명을 끌고 들어와 때린다.  
대영... 일말의 망설임 없이 차에서 내려 남자들에게 다가간다.

조대영 (남자들에게) 어이... 야... 니들... 지금 뭐하고 자빠졌나?

홍기택 야... 이 존만아... 그냥 가라... 형들 지금 사업 중이다.

조대영 아이... 씹새끼.. 초면에 말 짧은 거 봐라... 싸가지 밥 말아 먹었나...

홍기택 너 뭐냐... 바보냐? 겁 대가리 밥 말아 먹었냐... (회칼을 꺼내며) 가라... 그냥...

조대영 (손으로 퍽 큐) 조까... 내가 원래 여자 건드리는 놈들은 가만 못 두거든...  
(허리춤에 삼단봉을 꺼내며) 가라... 그냥... 돼지게 맞기 싫으면...

홍기택 아... 이 씨바르 새끼... 느닷없이 웬 오바를... 이리도 하실까...  
(부하들에게) 재 좀 어떻게 해봐라...

쌍둥이파 조직원들, 전원 회칼을 들고 대영에게로 다가선다.  
순식간에 대영과 쌍둥이파 간에 목숨 건 혈투가 시작된다.  
하지만 대영의 삼단봉에 추풍낙엽처럼 나가떨어지는 쌍둥이파.  
쓰러져 있던 여자가 그런 대영의 모습을 지켜본다.

사장인 홍기택까지 회칼을 들고 덤벼보지만 역부족... 모두 36계 출행랑을 친다.  
대영, 쫓아가다가... 여자가 걱정 돼... 추격을 멈추고... 돌아온다.  
대영, 쓰러져 있는 여자에게 다가가 몸을 일으켜 세운다.

조대영 괜찮으세요?

천천히 고개를 드는 여자... 백장미!  
대영, 아름다운 장미의 얼굴에 넋을 잃는다. 눈길이 뜨겁게 맞부딪히는 대영과 장미.

## 21. 동대문 인근. 커피숍. N

장미... 잠시 대영의 얼굴을 바라보다... 맞아서 다친 눈을 가리려고 선글라스를 쓴다.  
담배를 피우는 장미.

조대영 (장미가 담배를 권하자) 아니요... 전 끊었거든요... 저기, 많이 힘드시겠지만...  
수사 협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영이 내민 형사신분증과 대영의 얼굴을 번갈아 보는 장미... 아쉬운 표정이 스친다.  
이때 주문한 커피가 나왔다는 종업원의 말에, 대영이 커피를 가지러 간다.

커피를 가지고 자리로 돌아와 보면... 이미 떠나고 없는 백장미.  
장미가 급히 떠나느라 남기고 간, 고가의 듀퐁 라이터를 집어 드는 대영.  
대영... 장미가 남기고 간 라이터를 만지작거린다.  
그때 전화가 와서 발신자를 확인해 보면... 반장의 전화.

#### < ACT 2 >

##### 22. 최대포네 껌데기집. N

대영과 반장, 취기가 올라 어색했던 분위기가 어느 정도 부드려워져 있다.

**오반장** 대영아. 아무리... 형사를 발견달이라고 해도 그렇지... 너... 성질 좀 죽여.  
용의자들한테 과도한 폭력을 행사한다고.. 번번이 승진심사에서 탈락했잖아...  
성질대로만 하지 말고... 니 앞가림도 좀 하고 실란 말이야...

**조대영** 됐슈... 우리 누나가 점 봤는데 내 사주에 관운이라곤... 쥐뿔도 없데...  
내 팔자에 승진은 개뿔... 그냥 나쁜 새끼들 두드려 패는 게 속 편해.

**오반장** (피식 웃다) 대영아... 같이 하자. 이번 소매치기 소탕..... 같이 가.

**조대영** 형... 내가... 그동안 연쇄살인범이고 조폭이고 언제 한번 마다한 적 있나?  
칼에 얼굴 찢창 나고, 갈비뼈 부러지고, 차에 깔려 얼굴에 타이어 자국  
나고, 다리 밑에서 떨어져도! 내가 언제 한번 우는 소리 했어?!

**오반장** 그러니까 피하려고만 하지 말고...

**조대영** 근데..... 나 이거 못해. 이건... 못하겠어, 형.

**오반장** (원샷 하고) ... 소매치기 전과 17번... '강만옥'... 일주일 전에 출소했다...

'강만옥'... 이라는 이름을 듣자... 안색이 흙빛으로 변하는 대영.

**오반장** 이게.... 니가 그러는 이유라면... 니 심정... 알 것 같아. 그래도...

**조대영** (들었던 술잔을 이빨로 물어뜯어 선혈이 낭자한 채로) 조까.... 형이 뭘 알아.  
뭘 안다고 지랄이야! 어설프게 아는 체 하면 형이고 반장이고... 죽는다.

대영,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나간다.

오반장 (대영 뒤통수에 일갈) 대체 언제까지 남대문 사건에 불박혀 살래!

그 말에 흠칫 멈춰 섰지만...  
이내 걸어 나가는 입 주위에 선혈이 낭자한 대영의 모습에서...

#### 23. 2000년. 남대문 시장 내 대도수입상가 내부. D

입 주위에 선혈이 낭자한 대영의 모습... 신입형사 시절의 대영이다.  
인파를 헤치며 거칠게 달리는데, 소매 아래로 피가 똑똑 떨어지고 있다.  
스쳐 지나는 대영의 곁으로, TV를 들려싼 상인 한 무리.

뉴스(소리) 2000년 6월 13일 오늘, 분단 50년 만에 최초로 성사되는 남북 정상회담을 위해 김대중 대통령을 태운 비행기가 평양 순안 공항에 도착하고 있습니다.

(디졸브 - 시간경과)

TV에선 이제 김대중과 김정일이 공항에서 포옹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다.  
지켜보는 상인들 무리 뒤로, 체포한 소매치기 여성을 끌고 내려오는 대영.

조대영 (다른 소매치기 여성을 검거하는 오연수를 발견하고) 오형사님!

그 소리에 오연수에게 체포된 여인이 고개를 돌려... 대영과 여인, 마주본다.  
이내 충격에 빠져드는 대영과 여인. 우뚝 멈춰 선 대영.  
그런 빈틈을 노리고 대영에게 체포된 여인이 대영을 밀치며 도망친다.  
그런데도 대영, 명하니 오연수에게 체포된 여인을 바라본다.  
그 여인은... 바로... 강만옥... 이다.

#### 24. 1980년. 5월. 서울 동대문구 전농동. 어린 대영의 집. M

(인서트) 부처님 오신 날 즈음, 곳곳에 연등이 걸려 있는 가난한 동네전경.

어린 대영의 집 내부.  
강만옥(30대 중반)과 대영누나(중학생), 어린 대영이 아침을 먹고 있다.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뉴스.

아나운서 김대중과 간첩들의 선동에 무장폭동을 일으켜 국가의 안위와 체제를 전복 시키려는 광주의 폭도들을 막기 위해 전두환 보안사령관은 군부대를 투입..

갑자기 문이 박살나며 형사들이 쳐들어온다.  
기세 좋게 들어오던 형사들, 어린 대영과 누나에 멈칫하더니 수갑을 감춘다.

강만옥	(놀라움과 분노... 이내 침착) 식전부터... 지랄들은.... 쌩.... 아침밥들은 먹고 나와서 이 지랄들이우. 아이들도 있는데 먹던 밥이나 다 먹고 갑시다.
	묵묵히 밥을 먹는 만옥의 기세에 눌려, 형사들 방 밖으로 나가 기다린다. 울음을 터뜨리는 대영의 누나. 어린 대영도 덩달아 울기 시작한다.
강만옥	(울고 있는 대영의 뒤통수를 툭 치며) 대영아... 사내새끼가... 밥 먹을 때 울면... 부랄 떨어진다고... 엄마가 그랬나... 안 그랬나.... 뚝 그치고 어서 밥이나 먹어.
	방 밖에서 지켜보던 형사들도... 짠한 기분에 씁쓸해진다.
25. 어린 대영의 집. 외부. M	형사들 차에 실려 있는 만옥과 형사들과 얘기를 하는 누나가 보인다. 조금 떨어진 곳, 홀짝대고 있는 대영 앞에 '부라보콘'을 내미는 한 형사.
형사	아저씬 엄마 친군데, 엄마랑 돈 벌러 외국 가는 거야. 멀리멀리 가서 한 10년 걸리거든. 누나 말 잘 듣고 있어. 그럼 엄마가 돈 많이 벌어 올 거야.
	이내 떠나는 형사들의 차. 만옥, 뒷 유리로 멀어지는 대영을 바라본다. 입이 미어터지게 부라보콘을 먹으며 멀어져가는 엄마를 지켜보다가... 뭔가 생각난 듯 부리나케 차를 향해 달리는 대영. 엄마를 향해 외친다.
어린대영	엄마... 외국 갔다 올 때 시계 사 와. 시계 꼭 사와.
	눈물로 흐려지는 만옥의 눈에, 건너편에 앉은 형사의 손목시계가 보이고...
26. 2000년. 남대문경찰서 강력 3반 내부. N	손목시계만 클로즈업으로 보여 지다가.... 카메라 빠지면 남대문경찰서 내. 오연수, 시계를 보며 조서작성 시간을 기입하고... 그에게 취조를 받고 있는 만옥. 조대영은 다른 업무를 보고 있지만... 신경은 온통 만옥에게로 가있다
오연수	어이... 만옥 아줌마... 현장에서 도망친 회사원들 누구야? 지금 어딨어?
강만옥	.....
오연수	당신 이제 또 들어가면... 보호감호 받아서... 할머니 돼서야 나와! 툭 까놓고... 아줌마, 소매치기 세계에 의리가 어딨나? 혼자 독박 쓸 거야?! 도망친 년 놈들 불어... 그럼 내가 정상참작 되도록... 조서 잘 꾸며줄게...

강만옥 나 항상 독고다이로 작업하는 거... 오형사도 잘 알잖아..

오연수 그럼 현장에서 도망치다 차에 치어 뛰진 년은 뭐야... 아줌마 친구 맞잖아...

강만옥 모르는 여자야.

오연수 이 씨발... 좋은 말로 하니까... 여자라고 봐 줄 거 같지... 착각 하지 마...  
우린 냄비들 우대... 죽도 안 해줘.

말하면서 계속 만옥의 뺨을 때리는 오연수.  
그런 만옥을 바라보는 대영의 표정에 모멸감이 스친다.  
오연수, 성질을 못 참고 발길질을 날리려는데...  
득달같이 달려와 만옥의 먹살을 부여잡고 질질 끌고 가는 대영.  
갑작스런 상황에 오연수 뿐 아니라 형사들 모두 할 말을 잃는다.  
순간 전원 정적... 정적 속에서 만옥을 끌고 취조실로 들어가 버리는 대영.

## 27. 남대문경찰서. 취조실 내부. N

시계 초침 소리만 가득한 취조실 안.  
마주앉은 대영과 만옥. 대영의 손끝 담배에서 재가 툭 떨어진다.

강만옥 생담배 태우지 말고.... 한 대 즐래?

대영, 쏘아보는데... 순간, 수갑 찬 손으로 대영의 팔목을 붙잡는 만옥.

강만옥 다쳤구나.

보면, 소매치기를 잡다 다친 손목 때문에 소맷단이 피로 물들어 있다.

조대영 (만옥의 팔을 뿌리치며) 지금... 병 주고 약 주냐...

강만옥 ... ..., 누나는 잘 있니?

조대영 왜? 얼굴 한번 안비치고 잘 사시다가... 하필 이럴 때 자식들 생각이 절절히 나시나?  
고작 소매치기나 하면서..... 이 꼬라지로 살려구... 우릴 버렸어?!

강만옥 대영아..... 엄마는 (하는데)

조대영 엄마? 이제 와서 엄마? 누가 엄마야? (전과 조회기록을 만옥에게 집어 던지며)  
어이... 소매치기 전과 16범... 강만옥 씨... 더러운 입으로 내 이름 부르지 마...

- 강만옥 (망연자실) 엄만, 니가 형사가 된 줄은 꿈에도...
- 조대영 씨발... 또 엄마래지! 나랑 누나한테 엄마라는 사람은 이십년 전에 죽었어.
- 대영,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문가로 걸어간다.
- 조대영 (문을 열려다 멈춰 서서) 차라리... 죽지 그랬어.
- 밖으로 나가는 아들의 뒷모습을 바라보는 만옥의 얼굴에서....

## 28. 지하철 1호선. 지하철 내부. D

만옥 얼굴 보이면... 초라하고 지친 몰골. 버려진 신문지들을 쥔고 있다.  
갑자기 푸대 안 신문지들을 밟는 구둣발.

홍기택 어이, 이게 누구야아? 필에 귀신 들렸다던 만옥 이모 아니야!  
그래도 왕년엔 마음만 먹으면 대통령 지갑도 턴다던 대선밴데...  
장미 이년, 만옥 이모 안모시고 뭐하니? (무시하고 멀어져 가는 만옥 뒤통수에)  
이모, 언제든 생각나면 콜! 내가 이사급으로 모실게!

외면하고 걸어가는 만옥의 걸음걸이가 불편해 보인다. 만옥을 스치는 기억...

(인터컷) 병원진료실. 만옥의 발끝을 살펴보는 의사.

의사 (조금 썩어 있는 발가락 끝을 매만지며) 당뇨로 인한 족부궤양입니다.  
당장 입원 치료 하세요. 안 그러면 최악의 경우 다리를 절단해야 합니다.

그런 생각을 떠올리던 만옥... 이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불편한 발걸음을 옮긴다.

## 29. 복싱도장. N.

도장 한쪽 벽면에 장식된 액자를 보고 있는 대영.  
프레임 안, 고교시절 대영과 선철이 전국체전 프랭카드 아래서 웃고 있다.  
그 사진을 보며 웃고 있는데, 대영의 어깨 위로 툭 떨어지는 글로브.

김선철 (링 위에서 양손의 글러브 탕- 마주치며) 어이, 대원고등학교 홍수환!  
놀면 뭐하냐... 한판 뜨자.

대영, 씩 웃으며 글로브를 주워든다.

(시간경과) 링 위에서 신나게 복싱을 하는 대영과 선철.

(시간경과) 링 바닥에 앉아 꽁치김치찌개에 소주를 마시는 대영과 선철.

김선철 씹새, 어떻게 여전하냐. (맞은 턱 매만지며) 맨날 스파링 하는 새끼 기죽게.

조대영 (소주 한잔 원 샷하고) 선철아...

김선철 왜?

조대영 ..... ....

김선철 너 그렇게 부르고 나면 꼭 아쉬운 소리 하더라... 나 돈 없다.

조대영 나... 오늘 무단결근했다... 선철아... 나, 형사 떼려 치고... 너랑 같이 복싱이나 할까?

김선철 ..... ....

조대영 우리 반 요즘 뭐하는 줄 알아?..... 소매치기 잡는 댄다. (키득대며) 웃기지?  
에민 소매치기 전과 17범이고, 자식새낀 그거 떼려잡는 형사라니... 쁙.

김선철 ..... ....

키득대던 대영, 그러나 이내 침울해진다. 그런 대영을 가만히 보는 선철.  
선철, 링 한쪽에 가 벽면에 붙은 사진을 가리키는데... 홍수환 선수의 사진.  
파나마에서 4전 5기 역전 KO승 이후 ‘엄마 나 챔피언 먹었어’ 외치는 그 사진.

김선철 너... 생각나? 니가 전국체전 금메달 땄을 때야...  
혼자 불 꺼진 도장에 들어 와서는... 메달을 목에 걸더니...  
이 사진을 바라보면서.. 엄마... 나 챔피언 먹었어...  
엄마... 나 챔피언 먹었어... 하며 비 맞은 중처럼 중얼대다... 울더라.  
어찌나 서럽게 울던지... 몰래 지켜보던 나도 짠했어... 임마.  
어이... 대원고등학교 홍수환... (우스꽝스런 복싱자세 취하며) 놀면 뭐 하나... 한판 뜨자.

대영, 그런 선철에 픽- 웃다가, 이내 서로 불들고 둥굴기 시작한다.

### 30. 대영 집. 마당 안. N

대문을 열고 들어오는 대영.

마루에서 전화를 받고 있는 누나. 대영, 누나 놀래 키려 뒤로 다가가는데...

조수현

(전화를 끊고 뒤돌다가 대영을 발견)... 대영아. 외할아버지... 돌아가셨데.

그 소리에 대영... 너무 놀라 갑자기 땀꾹질을 한다.

31.

### 동대문 의류상가 뒷골목. N

상점이 철시해 으슥한 시장길. 정적 속, 텅-텅- 벽면을 통기는 테니스 공.  
자신들을 겨냥해 날아드는 테니스공 때문에 벌벌 떨며 서 있는 여고생 두 명.  
쌍둥이파 홍기택, 테니스 채로 더 세게 공을 치면 올기 시작하는 여고생1.

홍기택

(여고생1의 머리채를 휘어잡고) 재수 없게 왜 올고 지랄이야. 똑! 안 그쳐?!

여고생1

아저씨..... 제... 지갑 주세요.

홍기택

(테니스채로 몸을 훑으며) 주긴 이년아. 니가 한번 주고 가야지.

비명을 지르는 여고생1. 그녀의 머리를 테니스 채로 강타하는 홍기택.

홍기택

아가, 유치원에서는 뭐 배웠니. 야밤에는 조용히 하는 게 공공질서야. 응?!

홍기택, 회칼을 들고 위협하며 여고생을 덮치려는데 어디선가 테니스공이 날아와...  
홍기택의 칼을 재껴 버린다. 쌍둥이파, 놀라 돌아보면 장미와 성수가 서 있다.

백장미

개버릇 남 못 준다더니, 테니스채 들고 여자 애들 강간하는 건 여전하구만.

홍기택

이게 누구야, 백사장님 아냐? (성수 가리키며) 뭐냐? 저 새끼가... 저번에 그 흑기사냐?

백장미

(피식) 아니... 흑기사는 따로 있고.. (성수를 가리키며) 우리 안테나야.  
오사카에 있을 때, 난다 긴다 하는 야쿠자들도 두 손 두 발 다든... 칼솜씨니까...  
해볼 만 할 거야.

살벌한 칼싸움이 시작된다. 신기에 가까운 솜씨로 제압해나가는 성수.  
홍기택의 다리를 불잡고 허벅지 대동맥을 가른다. 피가 솟구친다.  
빠른 칼질로 기택의 아킬레스건을 도려내는 성수. 출행랑치는 쌍둥이파.

백장미

성수야, 쌍둥이네 제겼으니까... 난 내일부터 현장 안 나가.  
'앉은 사장'(뒤에 숨어있는 실질적 사장)하면서 회사 관리나 할 거니까...  
니가 회사원들 잘 쟁겨. 용수나... 원종... 아저씨... 절대 믿지 말고... 알았지?

32.

### 동대문 인근. 은행 내부. D

소파에 앉아 고객들을 빠르게 훑고 있는 원종의 시선이 한 30대 여자를 향한다.  
호출음이 울리고, 30대 여자가 번호표를 들고 대출계로 간다.

**대출계 직원** (1000만원 수표 10장을 건네며) 고객님. 신청하신 주택담보대출 1억입니다.

가방에 돈을 챙겨 은행을 나서는 여자를 따라 가는 예리한 눈빛의 원종.

### 33. 은행 앞 버스정류장. D

버스정류장으로 향하는 30대 여자 뒤로, 대기하고 있는 용수와 성수가 보인다.  
원종이 눈짓하면 버스를 기다리는 여자 주위로 자연스럽게 다가서는 삼성파.  
버스가 도착하자 눈치를 살피다 여자보다 한발 앞서 버스에 올라타는 원종.

**이원종** (승차문 입구에 올라서서) 기사님... 이 버스 방화동 가죠?

자연스럽게 원종의 뒤에 서게 되는 30대여자.  
버스를 타는 척, 여자의 바로 뒤에 붙어 서서 작업을 시작하는 ‘기계’ 용수.

**이원종** (기사가 안 간다고 손을 젓자) 그래요... 그럼 방화동 가는 건 몇 번 타야 되죠?

**기사** (짜증) 몰라요.

30대 여자의 시선이 원종과 기사의 대화에 쏠린 사이...  
용수가 필로 여자의 가방을 가르고 지갑을 꺼내서, 뒤에선 성수에게 넘긴다.  
소매치기 세계에서 ‘까치집을 짓는다’는 수법으로 통하는 기술이다.

**이원종** (버스에서 내리며) 이 양반이 안가면 안 갔지... 왜 신경질은 내고 그래.

원종이 내리고 버스에 올라타는 여자. 여자를 태운 버스가 출발한다.

### 34. 도심의 거리. D

삼성파 앞으로 멈추는 벤츠 한대.  
소매치기들이 흠큰 수표를 현금으로 바꿔다 주는 역할을 하는 속칭 ‘딱지꾼’ 등장.

**딱지꾼** 딱지 몇 장?

**손용수** 열 장...

**딱지꾼** 씨발... 끈돈 갖고 오라가라야 죽도... 수수료 6:4. 알지?

**손용수** 애비가 고 들어가기 전에(\*피해자가 은행에 신고하기 전에) 빨리 바꿔와.  
(수표를 건네며) 옛날처럼 뻥 까면 진짜 죽는다.

수표를 받아들고 피식 웃으며 벤츠를 몰고 급출발하는 딱지꾼.

**손용수** 에이 나쁜 새끼! 재주는 때끼(소매치기)가 부리고... 돈은 딱지꾼만 번더니...

### 35. 동대문 전철역 계단. N

손가방을 든 중년남자가 계단을 올라간다. 남자를 뒤쫓는 삼성파.  
용수, 남자의 조금 아래쪽에서 따라 올라가며 한손으로 슬쩍 지퍼를 연다.  
순간, 남자가 돌아보다 발견... 용수의 손목을 움켜쥔다.  
용수 씩 하고 웃더니... 지갑을 놓고... 손목을 빼려고 한다.

**남자** (용수 손목 움켜쥐고) 소매치기다! 도와주세요... 소매치기예요... 사람 살려!

남자의 저항에 당황한 삼성파 일행.  
뿌리치려는 용수를 완력으로 불잡고 있는 중년남잘 구하러 사람들이 다가선다.  
급박해지자 성수, 품에서 접이식 톱을 꺼내 남자의 팔을 사정없이 내려친다.  
'가지치기'... 남자의 팔이 찢기며 피가 튀고 아수라장이 되는 인파들.  
공포에 질려있는 남자에게 다가가, 지갑을 뺏고 재빨리 사라지는 삼성파.

### 36. 강원도 평창강 인근 장지. D

유족도 얼마 되지 않는 쓸쓸한 대영 외할아버지의 장지... 관이 내려간다.

**이모할머니** (갑자기 관을 불들고 늘어져) 어이구우.... 우리 아제, 하나 있는 딸년이랑  
인사도 못 하고... 만옥이! 만옥이 년 데려와라. 그전엔 아제 못 보낸다아...

**친척어른** 소식 끊긴지 이십년도 지난 사람을 어떻게 데려 온답니까.

**이모할머니** 이놈아, 그게 아니다. 딸년이 애비 가는 길도 못 보고 이게 무슨 경우냐...

**친척어른** 그만 좀 하세요! 동네 쟁피하게. 어디 자랑 났습니까?  
우리 집안에 소매치기 났다고 동네방네 알려야 속이 시원하시겠어요?

그런 소란을 망연자실... 바라만 보고 있는 대영과 수현.

### 37. 청계천 인근 호텔 스위트 룸. D

탁자 위에 수북이 쌓인 돈. 삼성파, 돈세는 기계로 돈을 세며 정산중이다.

하지만 장미는 심각한 표정으로 TV뉴스만 보고 있다.  
아이의 수술비를 마련하기 위해 대출을 한 돈을 버스정류장에서 털린 여자의 사연..  
그래서 수술비가 없어 아이가 죽어가고 있다는 안타까운 소식과 함께...  
'가지치기'를 당해 중상을 입고 돈을 뺏긴 남자의 사연이 뉴스로 전해지고 있다.

퍽- 꺼지는 TV. 리모컨을 쥔 장미, 다짜고짜 던지는데... 용수가 눈 주위를 맞는다.

손용수 (찢어진 눈가에서 피가 배나오고) 에이 씨! 뭐야?

백장미 조심하랬지. 안 그래도 야당에 쌍둥이파 새끼들까지 쥐새끼처럼 숨어서 노리고 있는데... 벌건 대낮에 가지치기를 하고 돌아다녀!!!!

최성수 죄송해요... 간만에 서울에서 작업 뛰는 거라... 제가 긴장 했나 봐요.

백장미 성수는... 1억 맞춰서... 익명으로 방송국에 보내. (다들 의아) 애 수술비 돌려주라고!

손용수 아니, 그렇게까지 할 거 있나... 우리가 자선사업 하는 것도 아니고...

백장미 아저씨... 한 달에 얼마 만지니? 애가 죽어간다는데 그깟 푼돈 1억이 아까워??!

다들 화가 난 장미에 기가 놀려... 슬금슬금 꼬리 내린다.

백장미 (창밖의 청계천 야경을 바라보며) 없어... 역시... 만옥이모 만한 사람이 없어...

### 38. 국도변 간이 휴게소 식당. D

휴게소에 상복 입은 몇몇 둘러 앉아 밥을 먹고 있다.  
밥을 먹고 있는 대영의 맞은편에 앉은 친척어른... 국밥을 뜨다가

친척어른 이거... 유품 정리하다가 찾았다.

대영 보면, 만옥과 수현, 대영 셋이서 찍은 어린 시절의 가족사진.  
대영, 사진을 빤히 보는데 이때, 휴게소안 TV에서 소매치기 관련 뉴스가 나온다.  
'가지치기'피해를 당한 남자의 인터뷰가 보여 진다.

피해남성 (병원에서 팔에 붕대를 감고) 퇴직금에 대출까지 받아서 그게 제 전 재산이거든요.  
근데 소매치기들한테 다 털렸어요.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해요.

뚫어져라 뉴스를 보고 있는 대영. 분노와 형사로서의 본능이 다시금 꿈틀댄다.  
그때 누나가 TV를 꺼버린다. 밥을 들고 와 대영 앞에 앉는 누나.

조수현 (반찬을 대영 쪽으로 밀며) 먹어... 초상 치르느라 제대로 못 먹었잖아...

밥을 한 수저 가득 입안으로 넣어 삼키는 누나... 조용하고 무거운 식사다.

### 39. 대영의 집 마당. N

마당 평상. 대영과 누나, 소주잔을 기울이고 있다.

조수현 (건배제의) 동생... 상주노릇 까지 하느라... 수고했어.

소주를 마시는 대영을 지켜보는 수현.

조수현 선철이 한테... 들었어.

조대영 .....

조수현 형사 그만 두겠다고 했다며... 대영아... 엄마... 때문이니?

조대영 ..... 누나. 오늘은... 그만 하자.

조수현 너... 처음 형사 되겠다고 했을 때 누나한테 뭐라고 했었니?

그 좋아하던 복싱까지 포기하면서 형사가 되겠다고.....

그래서 엄마 때문에 피해 받은 사람들한테... 조금이라도 용서를 빌며 살겠다고 했잖아.

조대영 .....

조수현 대영아... 이제 그만큼 했으면... 그 사람들도 널 용서 했을 거야.

이제 니가 엄마를 용서해주면 안되겠니?

조대영 우와... 우리 누나 교회 다니더니... 말빨 좋아졌네...

지금 무슨 죄 많은 어린양 전도 하고 있냐... 나 들어가 잘래. 졸린다.

(평상에서 내려가는데)

조수현 엄마 왔었어...

조대영 (우뚝, 불박은 듯 멈춘다) ... ... ...

조수현 발인 나가던 날 새벽에... 몰래 오셔서 영정에 절하고 가셨어. 너... 외할아버지 영정 옆에서 쓰러져 자는 거... 한참 보다 가셨어. 우시더라. 니가 형사가 돼서 자랑스럽다고.. 대영아... 이제 그만... 우리 엄마를 용서해 주자. 응?

**조대영** ... ... ... ... 모르겠어. (누나의 간절한 눈빛을 들여다 보다) 휴... 생각 해 볼게...

보름달이 휘영청 떠 있고 달빛이 두 오누이를 감싼다.

#### 40. 몽타쥬. 대영이 집 앞과 서울의 거리들. M

- 다음날 아침. 대영이 타고 있는 차의 카오디오에서 울려 퍼지는 노래.

Lynyrd Skynyrd의 전설적인 명곡 'Simple Man'.

어린 아들이 어떤 남자로 자라났으면 좋겠다는 엄마의 소망을 담은 가사다.

출근하는 대영을 문 앞에서 배웅하는 누나.

앞치마까지 두르고 나와 바이바이 손을 흔든다.

**조대영** (차를 출발시키며 같이 손을 흔들다)... 셋... 누가 보면 마누란 줄 알겠네... 오버는...

씩하고 미소 지으며 골목길을 빠져 나가는 대영의 차.

반짝이는 아침 햇살에 눈이 부시지만... 새로운 출발에... 좋은 음악에 기분이 좋은 대영.

이하 몽타쥬가 끝날 때까지 'Simple Man'... 계속해서 흐른다.

차를 운전하는 대영의 시선으로 서울의 출근길... 여러 정경들이 보여 진다.

#### 41. 광역수사대. 조직범죄수사2반. M

오반장과 형사들 회의를 하고 있다. 하지만 대영의 모습은 보이지 않는다.

**오반장** 소매치기 겸거에는 기술이나 요령이 없다.

소매치기 1개 조직 실체를 밝히려면, 최소 6개월은 길바닥 쓸고 다녀야한다.

앞으로 버스, 지하철, 시내 번화가! 소매치기 출몰 예상지역을 훑고 다닌다.

마약범과 사기꾼은 숨소리 빼곤 다 거짓말이라고 한다.

하지만 소매치기는 숨소리마저도 거짓말이다.

그러니까 어떠한 경우라도.... 소매치기는 절대 믿지 마라. 알겠지?

**일동** 네!

**오반장** 그럼 각별히 몸조심하고... 출발해.

**막내형사** (대영의 빈 자리를 바라보다) 반장님... 조형사님은....

**오반장** 대영이... 안 올 거야... 앞으로 우리 식구 아니라고 생각하는 게... 피차 속 편해.

이때 뒤에서 들려오는 목소리

**조대영** 어이~ 오반장님! 남자가 의리가 있어야지... 초상 치루고 온 사람 등은 못 두들겨줄 망정... 사람을 이렇게 내치시나... 부의금도 반장들 중에서 제일 조금 냈더만... 쪼잔하게.. 말이야...

반가운 형사들. 더 반가운 오반장.

**조대영** (막내에게) 뭐해... 막내야... 가자...

대영, 형사들과 어울려 밖으로 나가려는데...

**오반장** 대영이는 잠깐 나 좀 봐.

#### 42. 광역수사대. 조직범죄수사2반. D

혼자 남아 파워포인트로 정리되어 있는 파일을 열어보는 대영.

**오반장(v.o)** 여기에 있는 정보들은 소매치기 전담반 때부터 모아둔 것들이야.  
이 파일을 숙지해서 전체적 수사 계획을 세워봐. 내가 없을 땐 독자적으로 움직이라고.

여성소매치기 리스트가 담긴 폴더를 클릭하자, 사진들이 나타난다.  
그들 중 가장 화려한 경력을 자랑하는 만옥의 사진도 보인다.  
씁쓸해지는 대영.... 계속해서 다른 소매치기 여성들을 검색하다가 놀란다.  
얼마 전 자신이 구해주었다가 홀연히 사라진 여자의 사진을 보게 된다.

**조대영** (스크린에 나타난 정보를 읊조리며) 성명... 백장미... 소매치기 전과 5범...

스크린에 비쳐진 사진 속 여자... 여전히 아름답다... 명하니 바라보던 대영.

**조대영** (전화) 막내야... 도착했니?... 그럼... 제일 먼저... 백장미... 라는 여자...  
일본 출입국 기록부터 체크해봐.

#### 43. 광역수사대. 조직범죄수사 2반. N

**막내형사** 2000년부터 일본을 자주 오갔고, 1달 전 오사카에서 입국한 기록이 있습니다.

**오반장** 그래? 일단은 빙고... (프랑켄에게) 은행계좌 쪽은?

**프랑켄** 잔고가 많은 편이긴 하지만... 일상 거래 외엔 딱히 수상한 점은 없습니다.

**오반장** 그럴 거야. 환치기... 돈세탁... 이런 거... 소매치기들한텐 누워서 떡먹기니까...  
그리고 원래 개들 예금 잘 안 해. 다 집에 쌓아놓지. 백장미라면.....  
충분히 가능성 있어. 대영아, 내가 수소문 해 놓을 테니까 한번 만나봐.

#### 44. 은행내부. D

대영과 막내형사가 확인 중인 CCTV 녹화테일.  
화면 안, 삼성파의 의뢰를 받은 딱지꾼이 수표를 환전하고 있다.

조대영 이걸로는 얼굴 파악이 힘들겠어. 딱지꾼들은 웬만한 서울 시내 은행 CCTV  
개수나 위치를 귀신같이 알아서 카메라를 교묘히 피하거든....

막내형사 그럼 어떡하죠?

조대영 휴... 별 수 있나... 맨땅에 혼자....

#### 45. 30대 여자가 지갑을 털린 버스정류장. D

빌딩과 빌딩 사이, 좁은 틈을 살피던 조대영이 휴지통을 뒤지던 막내를 부른다.

조대영 막내야... 여기 있다!

막내가 달려가면... 장갑을 끼고 건물 틈 사이에서 지갑을 꺼내드는 조대영.  
지갑을 펼치자, 아이 수술비를 털린 30대 여자의 신분증 등이 나온다.

조대영 여기서 털린 게 확실해. 버릴 때 지웠겠지만, 혹시 모르니까 지문감식 해봐.

그때 정류장에 와 서는 한대의 버스. 버스 안에는 용수와 원종이 타고 있다.

#### 46. 버스 내부. D

손용수 (대영 일행 보며) 저 새끼들... 깜지(피해자의 지갑) 빠는 게 곰 아저씨 같은데...

이원종 회사반 없어진 줄 알았더니 웬 곰들이죠?

정류장에 정차해 있던 버스 출발한다.

손용수 (멀어져가는 대영 보며) 이거 곰들 재주부리기 시작했는데... 조심해야겠어.  
벙카 치는 것만 맞춰보고... 학고(시내버스)는 시마이 하자고...

이원종 그러죠... 안 그래도 뻥 깐다고 백사장이랑 성수 놈이 의심하던데...

한 중년남자에게 불는 용수와 원종. 순간 버스가 커브를 돌자 한쪽으로 쓸리며...  
손잡이를 잡고 있는 남자의 양복 안쪽이 벌어진다. 그 틈에 손을 넣는 용수.

동시에 원종은 들고 있던 서류가방을 중년남자의 양복 바깥쪽에 댄다.  
용수의 필이 안주머니를 가르기 좋게, 일종의 판을 바깥쪽에서 대준 격이다.  
'벙카치기'라고 부르는 기술이다.  
안주머니를 열십자로 갈라 지갑은 두고, 지갑 속의 현금만 빼내는 용수.

#### 47. 버스정류장 인근. 지구대. D

황당한 표정의 중년남자와 열십자로 갈린 양복 주머니를 보는 오반장 일행.

오반장 (십자로 갈라진 면을 만져보며) 필 쓴 솜씨를 보니 지난번 대출금 털린 건이랑  
동일범 같아... 면이 반듯하게 갈린 게 '벙카치기' 같은데... 이거 특급기계야.  
이 정도 놈들이면 백장미도 알고 있을 거야. (대영에게) 오늘 가서 만나봐.

#### 48. 백장미의 타투샵. D

실내에 울려 퍼지는 쇼팽 '녹턴' 20번 연주곡.  
대기실에서 장미를 기다리고 있는 대영과 막내. 장미가 문을 열고 나온다.

백장미 (대영을 보더니) 저희, 구면이죠?

#### 49. 타투샵 내 응접실. D

장미와 쇼파에 마주앉은 막내. 서서 벽면을 장식하고 있는 사진들을 보고 있는 대영.

막내형사 반장님한테 들으셨겠지만... 몇 가지 간단히 여쭤볼까 해서... (하는데)

조대영 (오사카 성 사진을 보며) 야... 이게 오사카 성이구나... 멋있다...  
(장미 맞은편에 앉으며) 얼마 전... 오사카에서 부산항으로 입국하셨던데...

백장미 요즘 형사님들은 한가하신가 보네요... 님의 사생활이나 캐고 다니고...

조대영 문제는... 누구의 사생활이냐는 거겠죠.

백장미 일본유학 가서 문신 기술 배워 온 것도 죄가 되나요?

조대영 이건 부업이고... 본업은 따로 있겠지요...

백장미 (씨익 웃으며) 오반장님이 정신교육을 너무 열심히 시키셨나보네.

장미의 앞으로 벙카치기 당한 양복을 툭 하고 던지는 대영.

조대영 (칼집 난 안주머니 보이며) 그 오반장님의 장미씨가 보면 알거라고 하던데.

백장미 병카치기 했구나? 누군지 솜씨 좋네... 이 정도로 놀 줄 아는 애들은...노량진 애들 정돈데... 아시겠지만 개네들... 지금 전부 청송에 들어가 있거든요...

조대영 (장미와 눈싸움 하다) 눈은 이제 괜찮으세요?

백장미 덕분에.

조대영 근데... 저번에 회칼 들고 설치던 새끼들은 누구인지... 혹시 아시나요?

백장미 글쎄요... 난데없이 나타나 달려드는데 제가 그걸 어떻게 알겠어요?

조대영 혹 소매치기 조직원들 아닐까 싶은데...(빙긋 웃으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백장미 (테이블 위 명함 들여다보며) 조대영 경장님... 조형사님은 형사보단 차라리 추리소설 쓰시는 게 나을 듯 싶은데... (빙긋 웃으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맞부딪히는 장미와 대영의 시선. 팽팽한 기싸움이다.

#### 50. 막내형사 차 안. N

운전을 하고 있는 막내형사. 대영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겨 있다.  
문득 바지 주머니에 손을 넣는 대영.  
뭔가 꺼내 보면, 일전에 장미가 놓고 간 듀퐁라이터다.

조대영 아... 깜빡했네...

라이터 불을 켰다... 켰다... 하며 생각에 잠기는 대영.

#### 51. 일식집. N

백장미 (회를 먹다가) 용수 아저씨... 나 몰래 학고(버스)에서 병카치기 한 적 있지?

손용수 (뜨끔) 아니.. 없는데...

백장미 (회 한점을 용수에게 건네며) 옛날에 올 엄마가 회사 차렸을 땐데..  
꼭 집 가는 길에 재미삼아 혼자 지갑 하나씩 털던 기계 새끼가 있었어.  
그 새끼 때문에 한번은 올 엄마가 덤팅이 쓰고 빵에 간 적이 있거든.

이원종 ..... 그래서요?

- 백장미 성수 시켜서 손가락 하날 잘랐어.
- 이원종 어떤 놈인지 기계 인생 하나 끌났구만.
- 백장미 아니, 그 새끼 말고..... 그 새끼 아들내미.
- 낄낄 웃는 장미와 성수. 용수, 회를 먹다 자기도 모르게 꿀꺽 삼켜 버린다.
- 백장미 이번 한번은 그냥 넘어가지만... 계속 그러면 곤란하다고 봐.  
덕분에 광역수사대 곰들까지 냄새 맡고 움직이게 됐잖아...
- 손용수 ..... 미안하다. 백사장... 갈수록 손이 까칠해 지는 거 같아서...  
첨엔 연습 삼아 시작했는데... 다시는 안 그럴게.
- 백장미 며칠 일 쉬자. 그동안 야당 허락도 얻고.. 곰들도 잠잠해지게..

## 52. 호텔 예식장 앞. D

승용차 두 대에 나눠 타고 있는 형사들. 전부 양복을 입고 있다.  
대영, 출입하는 사람들의 사진을 찍는데... 차에서 내리는 장미가 포착된다.

## 53. 식장 안. D

야당 정연욱이 신랑과 함께 입구에 서서 하객들을 맞이하고 있다.  
또 다른 소매치기 조직 ‘대머리파’ 사장 ‘김광섭’이 야당 앞에 다가선다.

- 김광섭 (가발을 매만지며) 이거 정말 축하드립니다, 어르신.
- 정연욱 어... 그래... 광섭이... 회사 잘 굴러가지?
- 김광섭 야당 어르신 덕분에 잘 굴러갑니다. 이따 식 끝나고 따로 찾아뵙겠습니다.

정연욱 주위에서... 대영, 사진사로 위장하고 하객들 얼굴 위주로 촬영한다.  
다른 형사들도 하객으로 가장해 식장 안을 돌아다니며 하객들을 주시한다.

## 54. 식장 안. 폐백실 앞. D

폐백을 하려고 들어서는 정연욱에게 접근하는 장미.

- 백장미 축하드립니다... 아드님이 어르신 많아서 인물 좋네요.

- 정연옥 (정색을 하며) 나와바리 얘기라면 관둬. 몇 번을 말해야 알아들어?
- 백장미 오연수 반장... 잘 아시죠? 며칠 전 통화하는데... 어르신 안부를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 정연옥 오반장 족보 팔아서... 나한테 협박을 하시겠다?
- 백장미 협박이 아니라 제안이죠. 그 때 남대문에서 쌍둥이 새끼들이 형사들한테...  
우릴 팔아 넘겼을 때... 사실 어르신이 뒤를 봐 줬다는 소문이 돌던데...  
(잠시 눈싸움) 사돈댁은... 어르신이 소매치기라는 거 아시나 몰라?
- 정연옥 (씨익) 장미... 많이 컸네... 담에 얘기하지. 남의 집 좋은 날에 와서... 실례잖아.
- 냉소와 함께 말없이 목례를 하고 뒤돌아서던 장미, 대영을 발견한다.
- 백장미 조형사님? (대영이 돌아보자) 어머, 맞네... 세상에... 형사님들 박봉이라더니  
지금 투잡하시는 거예요? 형사는 부업... 본업은 찍사... 호호...
- 대영, 당황스런 기색이지만, 그것보다 기싸움에서 놀린 것 같아 불쾌하다.  
말없이 비상계단 문을 열고 내려가는 대영.

## 55. 비상계단. D

- 백장미 조형사님!
- 대영... 멈춰 서서 올려다본다. 백장미, 내려와 대영의 코앞에 선다.
- 백장미 (흐트러진 대영의 넥타이를 바로 해주며) 양복이 어울리네요... 누가 보면  
새신랑인줄 알겠어요. 우리 언제 술 한 잔 해야죠? 제가 감사할 것도 있고...
- 장미를 바라보던 대영, 들풍 라이터를 내민다.
- 조대영 가져가요.
- 백장미 가지세요, 그냥. 감사의 뜻이니까.
- 조대영 담배 끊었다고... 말씀 드린 것 같은데...
- 백장미 (라이터 넣으며 대영의 눈을 바라보다) 호랑이... 당신한테 어울릴 것 같아.  
언젠가 내 손으로 그려줄게.

갑자기 반말을 하더니 돌아서 가는 장미. 병 찐 채로 그녀의 뒷모습을 보는 대영. 대영을 뒤로하고 걷던 장미, 미소 지으며 손을 펴보면... 대영의 핸드폰이다.

## 56. 서울역 지하도. D

만옥, 노숙자들에게서 떨어져 앉아, 자신의 배에 인슐린 주사를 놓고 있다. 기척에 고개를 들어 보면, 어느새 만옥 앞에 서 있는 백장미와 삼성파.

**백장미** 이모, 정말 장미 나쁜 년 만든다. 당뇨라며? 병원치료 해도 속 쓰릴 판에... 뭐야 이게... 노숙이나 하구! 우리 사이에 도와달라고 말 한마디 못 해?

**강만옥** 나... 니 돈... 필요 없어.

**백장미** 왜? 소매치기 한 돈이라서?

**강만옥** (시선외면) ... ... ...

**백장미** (섭섭함을 참으며) 좋아. 기계 하라고 안 할 거니까... 한번만 도와줘. (삼성파를 가리키며) 연필질이 서툴고... 마무리가 영성해. 이모 기술, 몇 수만 우리 얘들한테 전수해 줘. 섭섭지 않게 챙겨줄게.

그런 제의를 하는 백장미를 쳐다보는 만옥. 내면에서 갈등이 소용돌이친다.

## 57. 광역수사대. 조직범죄수사2반. N

노트북과 연결해 스크린으로 결혼식장에서 찍어온 사진들을 보는 형사들.

**오반장** 저 자식 아직도 일 뛰나? 저 놈은 소매치기전과만 10범이야.

**프랑켄** (뚱뚱한 아줌마 보며) 저 아줌마도 소매치기예요?

**오반장** 아~ 강순자.. 전직 나이트 클럽 DJ였는데 땅뱅이라는 소매치기랑 결혼했지.

**프랑켄** (웃기다) DJ 요? 하하하...

**오반장** 저 새끼들 중에... 아이 수술비 먹은 새끼도 분명 있을 거야..  
내일부터 동대문하고 명동에 나가서 결혼식에 온 수상한 놈들 다 잡아오자고!

대영, 사진을 보면서도... 아까부터 뭔가를 찾고 있다.

(시간경과) 홀로 남아 자신의 핸드폰에 전화를 거는 대영. 신호만 가고 받지 않는다.

다시 전화를 걸어도 받지 않아 끊으려는 순간,

여자목소리      여보세요...

조대영      아... 제가 핸드폰을 잃어버려서 전화를 한 건데요...

여자소리      하하하... 조형사님... 저예요... 백장미.

조대영      (놀라움과 동시에 성질나서) 이젠 형사 핸드폰까지 소매치기 해가시나 봐...

백장미      섭섭한데요. 예식장 바닥에 떨어져 있길래... 주워 온 건데...  
고마워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와서 찾아가세요.

특 끊기는 전화. 어이없어 하는 대영의 표정.

## 58. 타투샵. 외부. N

문 앞에서 그냥 갈까 망설이다가... 결국 샵 문을 두드리는 대영.  
문이 열리고, 섹시한 차림의 장미가 서 있다.

조대영      내 핸드폰(하는데)

백장미      (말 끊으며) 급하긴. 차 한 잔 하고 가세요. 바닥식구(소매치기)애들 말인데요...  
얼마 전에 재밌는 얘기를 하나 들었거든요....

성큼 안으로 들어가 버리는 장미를 바라보고 선 대영의 난감한 표정.

## 59. 타투샵 내실. N

대영, 소파에 앉아 있다. 미니바에서 위스키 언더락 두 잔을 만들어 가지고 오는 장미.

백장미      (한 모금 마시며) '로얄 살루트' 50년 산 이에요... 제가 좋아하는 술인데... 어떠실지?

조대영      (술은 쳐다도 안보고) 하려던 얘기가 뭐에요?

백장미      우리 벌써 네 번째인가요? 그러고 보니... 우리... 보통 인연이 아닌데요?

조대영      (성질 버럭) 할 얘기가 뭐냐니까요?

백장미      정말 성미 급하셔... 바닥식구들 몇 명 만나봤는데... 명동 지하상가 쪽...  
대머리파 애들이 회사 굴린다고 하더라구요.

얼마 전 애 수술비도 개네들이 가져간 것 같다고 하던데... 사장 이름이 '김광섭'이래요.

조대영 (형사수첩 꺼내 적으며) 확실한 거죠?

백장미 이쪽 일이 언제 뭐 확실한 게 있나요... 하지만 믿어야 본전 아닌가요?  
(시니컬한 미소) 안 믿기면... 안 가보실건가요?  
아 참, 핸드폰은 턴테이블 옆에 있어요.

턴테이블 위 자신의 핸드폰을 집다가 벽면에 걸린 초호화 요트사진을 본다.  
장미, 어느새 대영 옆에 다가와 서 있다.

백장미 이태리 폐레티 그룹의 요트예요... 40억 정도 하는데.... 저 요트 사는 게 꿈이에요.

조대영 돈 생기시는 데가 많으신가 보네... 문신 파주고 풀돈 벌면서 꿀 꿈은 아닌 것 같은데.  
장미와 대영의 팽팽한 눈싸움. 장미... 씨익 웃더니... 서랍함에서 무언가 꺼내더니...  
대영에게 바싹 다가와 보여준다.

백장미 보세요, 요트운전 자격증이에요. 오사카에 있을 때 땐 거예요...  
말하는 사이사이... 장미를 훔쳐보며... 장미의 섹시함에 흔들리는 모습이 역력한 대영.

당장이라도 섹스를 하고 싶을 만큼 매혹적인 장미. 두 사람의 시선... 뜨겁게 부딪힌다.

조대영 (마음을 다잡으며) 전 그만 가볼게요. 핸드폰... 고마웠어요.

대영, 부리나케 밖으로 나간다.

백장미 (그런 대영을 바라보며 미소) 귀여워... 제법 귀여운 구석이 많아.

장미, 문을 닫고 돌아서는데... 어느 순간 표정이 돌변해 있다.

백장미 (화가 잔뜩) 나와!

내실 뒤편... 커튼 뒤에서 슬쩍 빠져나오는 성수.

백장미 (성수의 뺨 철썩 때리며) 내가 키우는 게 범새긴 줄 알았는데 쥐새끼였어?

최성수 (질투심 역력한 표정으로) 형사새끼한테... 꼭 이렇게까지 해야 해요?

성수를 지나쳐 소파에 가 몸을 묻는 장미.

**백장미** (피식) 새삼스레 왜 그러니... 형사들 꼬드겨서 가지고 노는 거...  
옛날부터 만옥 이모나 선수들이 다 했던 건데...

서로를 노려보는 장미와 성수. 담배에 불을 붙이는 장미.

**백장미** (담배연기 길게 내뿜으며) 사내새끼들은... 정말 피곤하다니까...

그런 장미에 질려 거칠게 나가버리는 성수.

## 60. 지하철역 내부. N

승객들이 버린 신문지를 담은 푸대자루를 끌고 지하철에서 내리는 만옥.  
불편한 발걸음으로 가는데... 득달같이 달려드는 푸대자루 여인 세 명.

**푸대자루1** (만옥의 먹살을 잡으며) 씨발년... 남의 밥그릇에다 숟가락을 디밀어도 유분수지...

**푸대자루2** 꺼져... 한번만 더 눈에 띄면...아가리를 확 찢어서... 창자를 꺼내... 줄넘기를 할 거니까...

**푸대자루3** 쌩년, 눈깔에 힘주는 거 봐... 확 눈깔을 파서 씹 구녕에 쳐박아 벌라..

**강만옥** 별 거지같은 년들이... 개떼처럼 모여서... 지랄을 떨고 자빠졌네.

강만옥의 머리채를 부여잡는 푸대자루1. 만옥도 지지 않고 머리채를 잡는다.  
공격에 가담하는 푸대자루 여인들. 한바탕 육탄전이 벌어진다.  
만옥, 불편한 발 때문에 점점 밀린다. 이내 푸대자루 여인들에게 푸지게 맞는 만옥.

(시간경과)

벤치에 앉아 있는 만옥의 산발을 한 머리는 군데군데 뽑혀있고...  
얼굴에는 온통 상처투성이이다. 만옥의 뇌리를 스치는 인터컷.

(인터컷)

**병원의사** 당뇨 때문에 신장이 많이 망가졌어요. 그래서 족부궤양도 생긴 거고요...  
한시라도 빨리 신장 혈액투석을 해야 하는데....

그런 생각을 하다... 한숨을 내쉬는 만옥의 시야에 공중전화부스가 보인다.

(시간경과)

**강만옥** (통화중) 장미야... 전에 말했던 거... 이모가 할게. 하는데... 대신 서울은 안 돼.  
대전역에서 하자. 나도 거기서 배웠거든... 거긴 형사들도 거의 없어... 공부하기 편해.

(잠시 망설이다) 근데... 돈은 좀 미리 부쳐줘. 이모가 병원치료부터 하고 나서... 대전에 내려갔으면 하거든.

## 61. 복싱도장. N

샌드백 앞에 서 있는 선철. 화가 나 대영을 쏘아 보고 있다.

김선철      너 대가리에 총 맞았나? 엄마 때문에 여기 와서 징징댄 게 엊그제잖아.  
                엄마한테 질려서 여자는 눈에도 안 들어 온다매?

조대영      ... ... ...

김선철      근데 하필 소매치기랑 연애하시겠다?

조대영      (버럭) 연애라니... 말 좀 가려서 하자...

김선철      (아랑곳 않고) 너 혹시... 그 여자랑 연애해서 엄마한테 복수하려는 거야?  
                정신 차리세요... 이 짭새 아저씨...  
                (대영에게 흑을 뺏으며) 혹 하나 제대로 못 피하면 케이오 당하는 게... 세상이야.  
                누나를 생각해서라도... 니가 그러면.... 사람새끼 아니지...

선철, 샌드백이 마치 대영인양... 두들기기 시작한다.

샌드백에 꽂히는 선철의 주먹이... 대영의 마음으로 날아와 꽂힌다.

## 62. 명동 지하상가. D

계단에 거지로 변장하고 앉아, 소매치기를 잡으려 잠복중인 대영.  
그 때, 진짜 거지청년이 대영에게 다가온다.

거지      아저씨... 여기 내 자리에요... (하면서 조대영을 잡아끈다)

조대영      (버럭) 젊은 자식이 할 짓이 없어서 깡통을 차고 다니나? 가서 땅이라도 파, 이 자식아!

거지      (벙찐다) 그러는 아저씨도 거지잖아요!

조대영      나... 거지 아니야...

거지      (더욱 벙찌서) 그럼 뭐예요?

그리고 보니 대영... 뭐라 대꾸할 말이 없다.

### 63.

### 대전역 구내. D

인파 사이에 만옥과 삼성파. 만옥, 명품 핸드백을 메고 가는 여성은 눈으로 찍자... 용수, 다가가 핸드백을 쥐고 지퍼를 열어 지갑을 꺼낸다.

강만옥

(용수에게 다가가 지갑을 확 뻗더니 피해여성에게) 아가씨... 지갑 쫓았어.

아가씨

네? (핸드백 확인) 어? 이게 왜 떨어졌지? (약간 미심쩍지만) 고맙습니다.

아가씨를 스쳐 지나는 만옥의 뒤를 따라붙는 삼성파.

손용수

이모... 지금 뭐 하는 짓이야?

강만옥

(자신의 손가방을 들어 보이며) 필을 쓰지 않고... 지퍼를 몰래 열어... 지갑을 꺼내려면... 따라 붙을 때 항상 두 손으로 받쳐서 가방 밑바닥을 잡은 후, 조심스럽게 오른손을 이동해서 지퍼를 열어야... 전체적으로 호흡과 자세가 안정돼서... 상대방이 김새를 채지 못하는 거야... 근데 너... 아까 보니까... 맘이 급해서 한 손으로 받쳤지... 그래서 산통 다 깨지는 거야.

창피한 용수와... 역시 하는 표정으로 만옥을 바라보는 성수와 원종.

강만옥

(다른 여자를 지목) 점심 쏘이기 내기 할까. 지갑이 어느 쪽에 있을 거 같아?

손용수

(지켜보다) 뒤 쪽...

강만옥

틀렸어. 앞 쪽이야. 잘 봐... 지금 핸드백 지퍼손잡이가 뒤 쪽에 있지... 그건 저 여자가 지갑을 앞에 놓고... 뒤로 지퍼를 잡갔다는 소리야. 소매치기는 손으로 하는 게 아니라 머리랑 눈으로 하는 거야. 가서 확인해봐.

용수... 따라붙으며... 이번에는 두 손으로 받친 후... 핸드백 열어보면 앞쪽에 있는 지갑. 지갑을 빼서 나오는 용수... 만옥을 보며 혀를 내두른다.

손용수

헤헤... 만옥 이모... 귀신이다. 귀신... 내가 졌수. 갑시다... '사리원'이라고 냉면 잘 하는 집 있거든... 거기 불고기도 죽여요.

강만옥

(앞서가는 용수를 불잡더니) 점심은 자기 돈으로 사야지.  
(용수의 주머니에서 방금 전 훔친 지갑을 빼내면서) 가서 돌려주고 와.

손용수

(벙찌며) 또... 왜요?

강만옥

공부하러 왔지... 돈 벌러 온 거 아니거든!

#### 64. 동 지하상가. D.

여전히 계단에서 거지행세를 하고 있는 대영. 짜장면을 시켜 먹고 있다.  
그 옆에는 어제의 거지청년이 같이 앉아 짜장면을 먹고 있다.  
지나가던 사람들, 이런 거지들 처음 봤다는 듯... 재밌는 반응들이다.  
거지청년... 걸신들린 듯 먹다가... 사래가 들려... 기침을 한다.

조대영 짜장면 첨 먹어보나... 좀 천천히 먹어.

거지 십 년 만에 먹어보는 거라... 넘 맛있어요... 고마워요 형사님...

조대영 아... 이 그지새끼... 형사라고 부르지 말랬지...

그때 대영 앞으로 양복 입은 한 무리의 남자들이 지나간다.  
대영 보면, 노인네를 따라 올라가며 바지 뒷주머니에서 지갑을 뺀다.  
장미가 말하던 대머리파 김광섭 일행이다. 대영, 부리나케 따라 붙는다.

조대영 (핸드폰 연결) 막내야... 때끼(소매치기) 새끼들 떴어.

#### 65. 명동, 후미진 골목길. D

돈만 빼내고 지갑은 건물 틈 사이로 날려버리는 대머리파 사장 '김광섭'.  
대영... 숨어서 지켜보면... 흡쳐 온 지갑들이 한 두 개가 아니다.

조대영 (그들이 자리를 뜨려하자 나서며) '바닥식구'가 어딨나 했더니... 여기 다 모여 있네.

김광섭 (거지 행색의 대영을 보곤) 넌 뭐하는 거지냐?

조대영 뭐긴 뭐야... 회사반이지... 오연수라고... 이름 들어봤지... 우리 반장님이거든.

회사반(소매치기 전담반)... 오연수... 라는 말에 움찔하는 김광섭 일행.  
그때, 어느 틈엔가 뒤에서 다가온 대머리파 안테나... 대영의 목덜미에 회칼을 겨눈다.

안테나 거, 우리도 밥 좀 먹읍시다 형사님... 그냥 보내 주슈.

긴장된 순간, 전광석화처럼 발차기를 차 올려서 안테나의 얼굴을 후려 까는 대영.  
때마침 막내형사 일행, 들이닥치고, 일대 격투가 벌어진다.  
대영, 봄싸움을 벌이다 광섭의 머리채를 휘어잡자 가발이 벗겨지며 대머리가 드러난다.

조대영 (대머리를 후려치며) 니가 대머리파 사장이구나. 돈 번거 다 뭐 했냐, 머리나 좀 심지.

일망타진 되는 대머리파.

## 66. 같은 시각. 명동 고층 커피숍 테라스. D

망원경으로 대머리파의 검거현장을 내려 보고 있는 장미와 정연옥.

정연옥      비밀은 무덤까지 가져가는 거야, 장미. 이제 과거 따윈 다 잊어 버리구... 잘 해보자고..

백장미      그럼요, 어르신이 다시 뒤통수만 안치시면... 잘되겠죠.

정연옥      (괜한 헛기침 후) 저번에 말했던... 그 견적대로 가는 건가?

백장미      네... 야당 어르신 다섯 분께 매주 현금으로 삼천씩... 노배(상납금) 올릴게요.

흡족한 표정으로 차를 들이키는 정연옥.

장미, 망원경으로 김광섭을 끌고 가고 있는 대영을 쫓다가... 전화를 한다.

백장미      응... 난데... 지금 명동까지 접수 끝냈어. (다소 들뜬) 성수야... 동대문부터 일 시작하자.

## 67. 광역수사대. 조직범죄수사 2반.N

조서를 작성하느라고 정신없는 형사들.

조대영      (대출금 털린 30대 여자 지갑을 내보이며) 이거 니가 훔친 거 맞잖아! 어디서 닦발이야!

김광섭      아 글쎄 난 아니라니까요! 한 두 개도 아니고 어떻게 그걸 다 기억해요!

조대영      (씨익 웃으며) 오호라~ 한 두 개도 아니고 어떻게 그걸 다 기억할 순 없다.

조서문에 그대로 쳐 넣는 대영. 유도심문에 넘어가 난감한 표정의 대머리파 사장 '김광섭'.

## 68. 동대문 운동장 앞. N

인파로 넘쳐나는 의류타운. 관광버스 한 대가 서고 줄줄이 내리는 보따리상들.

삼성파의 시선이 보따리상들이 허리에 찬 전대에 꽂혀 있다.

이원종      무주공산에 무혈입성이라... 좋다...

손용수      자 그럼.. 우리도 필 좀 받아볼까?

보따리상들을 뒤쫓아 가는 삼성파.

#### 69. 동대문 평화상가 내부. N

한꺼번에 몰려 든 보따리상들이 옷을 구입하느라 북새통이다.  
보따리상들 옆에서 옷 고르는 동작을 크게 하며 사람들 시야를 가리는 바람잡이 원종.  
그때를 놓치지 않고... 보따리상들 전대의 지폐를 열어 현금의 일부만 꺼내는 용수.  
현금을 꺼낸 후 다시 전대의 지폐를 닫는 용수. 완벽한 뒤처리다.  
안데나 성수는 주변을 날카롭게 살피면서... 용수가 훔쳐낸 현금을 받아낸다.

#### 70. 청계천 인근 호텔 스위트룸. N

지폐 세는 기계까지 동원해 산더미 같이 쌓인 현금을 정리하는 백장미.

손용수 (돈을 보다가 돌아서 청계천의 야경을 내려다보며) 청계천만 재개발했느냐...  
우리 사는 꼬라지도... 재개발이다...

이원종 (너스레 반... 빙정 반) 백사장님... 이렇게 돈 많이 벌어서 어디에 다 쓰시려구요?  
죽을 때 가져가시렵니까? 왜 이렇게 죽을 둥 살 등... 돈 버시는 겁니까?

백장미 (원종을 쳐다보며) 삼성 이건희가 돈 없어서 돈 벌겠어?

이원종 ???????

백장미 나도 그래... 뭔 말인지 모르겠지? 그럼 아저씨도 나만큼 돈 벌어봐. 그럼 알거야.

그때, 백장미의 핸드폰이 울린다. 발신자 확인 후 구석에 가서 전화를 받는 백장미.

백장미 (일어로) 모시모시. 테라지마상? 네... 동경 쪽 분위진 좀 어때요? 네...  
준비 잘 해주세요... 예, 돈 관리 좀 잘해주시고요...

#### 71. 대영의 집. N

마당 평상에 앉아 이야기 하고 있는 만옥과 수현.

강만옥 (봉투를 수현 손에 쥐어주며) 많이 못 넣었어. 외할아버지 49제때 보태.

조수현 (봉투 물리며) 엄마, 정말 이러지 마세요, 괜찮아요.

강만옥 생전에 용돈 한번 제대로 못 챙겨드렸어.

수현, 그 말에 짠해 받아서 챙긴다.

조대영(소리) (일갈) 조수현!

만옥과 수현, 깜짝 놀라 돌아보면 무서운 얼굴로 문가에 서 있는 대영.

조대영 그 더러운 돈... 당장 돌려줘!

쏜살같이 달려 와 누나의 손에 들린 봉투를 낚아채는 대영, 바닥에 던져버린다.

조대영 소매치기해서 번 돈... 49제때 쓰면... 외할아버지 좋은데 못가. 지옥 간다구..

굳은 표정으로 바닥에 떨어진 돈들을 하나하나 줍기 시작하는 만옥.

조수현 대영아... 이러지 마. 무슨 짓이야.

강만옥 (돈 주워 수현에게 내밀며) 소매치기 한 돈 아니야. 신문지 모아 팔아서 만든 돈이야.

조대영 받지 마!

강만옥 받아, 나도 자식 노릇 한번 해보게... 받으라구!

수현, 중간에서 어찌할 줄 모른다. 벌벌 떨며 서 있는 수현.

조대영 (만옥을 문가로 끌고 가면서) 나가! 당장 나가!

조수현 (대영의 등을 향해) 대영아... 엄마잖아... 엄마한테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  
(온 힘을 다해 절규) 대영아.... 엄마한테 그러지 말라고...

절규에 놀라 대영과 만옥이 돌아보면, 수현 눈을 뒤집고 몸을 뒤틀며 바닥에 쓰러진다.  
입에 거품을 물고 간질 발작을 하고 있다. 대영이 달려가 누나를 감싸 안는다.

조대영 누나! 누나! 정신 차려... 숨 천천히 쉬고... 몸에 힘 빼.... 힘 빼라고... 제발...

강만옥 왜 이래? 수현이... 안 그랬잖아.... 언제부터 이랬어?

조대영 궁금하긴 해? 당신 딸이라서? 지 엄마가 소매치기라는 거 처음 알고 외갓집 대들보에  
목을 맷어... 다 죽다가 살아나더니 계속 이래. (수현을 안고 가며) 다시는 오지 마...  
앞으로 한번만 더 내 집에 발 들여 놓으면... 그땐 다 같이 죽는 거야. 진짜야.

마당에 홀로 남은 만옥... 충격과 죄책감에 오한이 난 것처럼... 몸을 면다.

## 72. 귀금속 상가 내부. D

가방을 든 중년여자(돼지엄마)를 지켜보는 장미와 삼성파의 모습에서....

**야당(v.o)** 화요일마다 '돼지엄마'라는 여자가 다이아 원석을 부산에서 가지고와서 남대문귀금속 상가에서 세공을 하거든. 원석은 8억 정도 될 거야. 털어 와봐. 배당은 6:4... OK?

돼지엄마, 시종일관 긴장된 표정으로 주위를 살피며 걸어간다.  
이때 장미의 시점으로... 돼지엄마를 향해 다가오는 쌍등이파가 보인다.

**백장미** 쌍등이파 떴어.. 용수 아저씨... 오늘은 내가 기계 할게... 아저씬 같이 바람이나 잡아.

용수, 고개를 끄덕인다. 다가오던 쌍등이파도 삼성파를 보고 긴장한다.

**홍기택** 장미... 저 쌍년... 돼지엄말 어떻게 알고... (불현듯) 야당... 이 씨발 영감탱이..  
(조직원들에게) 오늘 다들 목숨 거는 거야... 이 밥그릇까지 뺏길 수는 없잖아...

코너를 도는 돼지엄마. 장미와 삼성파.... 쌍등이파보다 앞서 돼지엄마에게 불린다.  
쌍등이파... 허겁지겁 코너를 돌면... 기다리고 있던 최성수.  
양복상의를 들어 회칼을 꺼내 보인다. 좁은 공간에서 엉기는 쌍등이파와 최성수.  
쌍등이파 안테나가 용기를 내 칼을 꺼내니 이내 회칼로 손목 인대를 끊어버리는 성수.

돼지엄마를 따라잡은 장미일행. 용수, 돼지엄마 앞으로 걸어가며 뭔가 바닥에 흘린다.  
바닥으로 흘어지는 이미테이션 보석들을 진짜인양 용수가 허겁지겁 줍기 시작하면...  
돼지엄마의 시선이 쏠리고... 이때, 원종 스치며 돼지엄마의 발을 밟더니 사과한다.

이렇게 돼지엄마의 시선이 이중으로 분산된 사이...  
장미... 필로 가방을 째고, 보석주머니를 꺼내... 유유히 돼지엄마를 스쳐 지나간다.  
사인을 주고받은 역으로 돌아 나오던 장미일행. 성수에게 찢쩔 매는 쌍등이파를 본다.

**백장미** 천하의 쌍등이파가 이게 뭔 풀이야? 누가 이랬어.... 응?  
(홍기택에게) 오빠...지팡이 진짜 어울린다. 진작 하고 다니게 만들걸... 호호..

장미를 따라 사라지는 삼성파. 성질이 난 홍기택, 지팡이로 안테나를 두들겨 팬다.

## 73. 쌍등이파의 아지트. N

**홍기택** 이 씨발 놈의 야당새끼가! 장미 이 개 같은 년하고 붙어먹어!!

이 때 벨이 울리는 기택의 핸드폰.

홍기택 (받으며) 네... 한변호사님... 네... (눈이 휘둥그레지며) 네? 알겠습니다... 네...  
(전화를 끊고) 얘들아... 용택 형님! 보석금이 받아들여져서... 출소하신 댄다.  
(기뻐하는 조직원들 보며) 장미... 이 씨발년.... 삼성파... 이 개새끼들... 다 죽었어.

#### 74. 청계천 인근 호텔 스위트룸. N

장미가 흠헌 다이아몬드 원석을 확인하는 정연옥.

정연옥 쌈빡하네, 잘빠졌어. 세공만 잘하면 곱질로 팔겠어. (일어서며) 처리하면, 연락할게.

백장미 (나가는 정연옥에게 목례하다... 성수에게) 넌 왜 안 가?

최성수 쌍둥이파놈들 아무래도 움직임이 이상해... 오늘은 내가 옆에서...

백장미 가라... 간만에 필 좀 썼더니... 피곤하다...

최성수 ... 조형사... 그 새끼 때문이야?

백장미 성수야... 너랑 나랑 동업한 게 벌써 10년 세월이다... 생전 안 그러더니...  
너 요즘 왜 그래? 짜증나게...

최성수 동업자가 아니라... (말이 벼벽) 나도 남자라고...

장미, 갑자기 성수의 손을 낚아채 자기 가슴에 가져다 댄다. 당황하는 성수.

백장미 꼴려? 니가 원하는 게 이런 거니?

최성수 (당황) 왜... 왜 이러우?

백장미 난 아래도 아무렇지 않아... 맘 없으면 꿈쩍도 않는 거... 그게 여자의 몸이야...  
난 너랑 섹스 할 마음... 눈꼽만치도 안나... 이제 어쩔 거야? 강간할래?

백장미의 아우라에 눌려.... 완전히 할 말 잃은 성수... 쓸쓸히 돌아 나간다.

#### 75. 동대문 인근 룸싸롱. N.

혼자서 아가씨 둘을 끼고 앉아 더럽게 놀고 있는 성수... 무지 취했다.  
킬킬대며... 남은 술을 아가씨들에게 들이붓더니 테이블을 뒤엎으며 바닥에 엎어진다.

최성수 (이를 빠드득 갈며) 조형사... 이... 개...새끼...

완전 짜증인 나가요들... 인사불성인 성수의 옷에서 지갑을 꺼내 카드를 빼낸다.

#### 76. 광역수사대. 조직범죄수사2반. D

점심을 먹고 막 들어오는 형사들. 대머리파 검거 이후 모처럼만에 여유로운 분위기다.

막내형사 (이쑤시개로 이를 쑤시며) 역시 순대국은... 강원도집이 최고야.

프랑켄 그래도... 최대포네 껌데기에... 목살 싸 먹는 게 최고지.

그 때 문을 콩... 하고 열어 제치고 들이 닥치는 광역수사대장.

대장 오반장님! 지금 대체 수사를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오반장 네?... 무슨 말씀인지?

대장 대머리인가 뭔가 하는 놈들 하나 잡았다고 다들 손 놓고 있는 거예요?

(문서를 오반장 앞으로 집어 던지며) 동대문에서 지난 일주일동안 피해건수만 320건, 피해액만 12억이 넘어요, 12억! 어제는 남대문에서 8억원 짜리 보석까지 훔쳤다구요! 청장님이 광역수사대에서 소매치기 검거할 능력 안 되면...일선서 강력반으로 넘기래요! 이게 무슨 개망신이에요? 꾸물거리지 말고 지금 당장 동대문 경찰서나 가 봐요!

#### 77. 동대문경찰서. D

도난카드로 계산을 했다는 남자의 름싸롱 CCTV를 보고 있는 대영 일행.

화면 안엔, 인사불성인 성수가 카운터 앞에서 행패를 부리는 장면이 포착되어 있다.

일선경찰 확인결과 소매치기 당한 사람의 카드로 계산 했어요.

조대영 (화면 속 성수를 바라보며) 막내야, 저 새끼 신원 좀 따봐라.

#### 78. 광역수사대. 조직범죄수사2반. N

CCTV 인물과 동종 전과자들 사진 대조작업으로 바쁜 형사들.

막내형사 반장님!

오반장 뭐 좀 나왔어?

막내형사 예. (모여 들면) 최성수, 28세. 현주소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내덕1동 74-1번지.

79. 충북 청주 툴게이트. D

툴게이트를 빠져 나가는 대영의 차. 이내 청주의 유명한 가로수 길이 펼쳐진다.

80. 청주 내덕동. 쇠성수의 주소지 앞. D

<성수탁구장>이란 입간판이 서 있는 허름한 건물 앞에 서 있는 대영의 차.

조대영 (운전석에서 간판을 보며) 성수탁구장? 나 참... 뭐 잘난 아들이라고... 성수탁구장이야.

81. 성수탁구장. 내부. D

대영과 막내 들어서면... 할머니와 꼬마가 탁구를 치고 있다.

(시간경과) 탁구를 치고 있는 할머니와 꼬마 앞에 서 있는 대영과 막내.

조대영 마지막으로 여기 온 게 언제라고요?

할머니 (여전히 탁구를 치며) 한 8년 됐남... (꼬마를 가리키며) 저 꼬마를 데꼬 왔유... 잠깐 데꼬 있으면... 애 기저귀 사가지고 오겠다고... 나간 게... 8년 이유.

조대영 그럼 저 꼬마가... 쇠성수 아들인가요?

할머니 그걸 내가 워치게 알유? 내가 물 끓이고 미역국 만들어서 받아낸 것도 아니잖유...

대영, 꼬마를 바라보다가 가슴이 짠해진다. 자기 어린 시절이 생각난다.

(시간경과) 이번엔 할머니와 막내형사가 탁구를 치고 있다.  
함께 부라보 콘을 먹으며 지켜보는 대영과 꼬마. 할머니 탁구 실력이 장난 아니다.

조대영 꼬마야... 근데 니네 할머니... 탁구장 몇 년 째 하시는 거냐?

꼬마 여가... 청주에서 제일 첨 생긴 탁구장이니께유... 한 50년 넘었다쥬...

(시간경과) 50년 내공의 할머니와 대영이 탁구를 치고 있다.  
대영, 무참히 지고 있다. 할머니가 때린 스매싱이 날아와 공이 대영의 눈에 부딪힌다.

조대영 (신경질적으로 탁구채를 던지며) 할머니가 이렇게 탁구 잘 쳐도 되는 거야?

할머니가... 이나중 탁구부야... 뭐야?

셔놓고 짜증내는 대영을 바라보며... 피식 웃는 할머니...

할머니 (갑자기... 문득) 근디... 탁구치느라 깜빡했는데... 너거들... 우리 아들은 왜 찾는겨?

대영과 막내, 듣고 보니 자신들의 신분도 온 목적도 밝히지 않았음에 겸연쩍게 웃는다.

## 82. 노점상. ‘만옥떡볶이’ 앞. D

떡볶이 장사를 시작한 만옥. 손님들이 꽤 있다. 멀리서 지켜보며 미소 짓는 조수현.

(시간경과)

손님들이 전부 빠지고 떡볶이 국물을 우려내고 있는 만옥 앞에 서 있는 수현.

조수현 그날은... 많이 놀라셨죠?

죄책감에 대답 없이 떡볶이만 휘젓는 만옥.

조수현 이번 토요일이.... 외할아버지 49제예요... 집에 오세요...

(만옥의 반응이 없자) 그날 대영이... 저한테 많이 혼나서 고분고분해졌어요....  
제가 말 잘 해놓을 테니까... 꼭 오세요.

그래도 대답이 없자 수현, 아쉬운 표정으로 돌아서려는데...

강만옥 ..... 정말... 내가 가도 되겠니?

그 소리에 빙긋이 웃는 수현. 마주보며 웃는 두 사람.

## 83. 테마 안마방. N

용수, 스튜어디스 제복차림의 아가씨에게 변태적인 안마를 받고 있다.

이때 들이닥치는 쌍둥이파. 미쳐 일어설 겨를도 없이 짓밟히는 용수.

지팡이를 짚고 선 홍기택의 옆에는 교도소에서 출소한 쌍둥이 형, 홍용택이 서 있다.

홍용택 어이; 용수... 요새 장미년 밀구녕 닦고 다닌다매... 내 동생 병신 만들고... 재미 좋지?  
니가 필을 그렇게 잘 쓴다며? 근데... 이제 필 좀 그만 써야겠다.

용택이 눈짓하자, 쌍둥이파들이 용수를 벽에 밀어 붙이고... 용수의 손을 올려 고정한다.  
부하에게 타정총(콘크리트 못이 발사되는 건설용 총)을 건네받는 용택.

홍용택 (타정총 발사, 용수의 얼굴 옆 벽면에 꽂히는 못) 어쿠, 씬데... 이러다 사람 잡겠어.

손용수	(몸부림을 치며) 하... 하지마... 안 돼...
홍용택	(손 보며) 씹새, 손 존나 곱게 생겼네... 근데 왜 이렇게 새끼손가락만... 쫓같이 생겼나?
	용택, 일말의 망설임 없이 용수의 새끼손가락을 향해 타정총을 발사한다. 타앙!
손용수	(발사된 못이 날아와 꽂힌다) 으아악!
홍용택	이런... 자세히 보니까... 다른 손가락도.... 쫓같이 생겼네.
	그리고 두 번째. 약지 손가락... 타앙!
손용수	아아악! 악! 끄윽... 으흐흐흐흐..... 이... 씨...발놈....들...
	다섯 손가락이 모두 박살나면서 벽에 손이 못 박히는 용수.
홍용택	가서 장미년이랑 안테나새끼한테 전해. 동대문... 명동... 그대로 다시 우리한테 반납하라고. 그래야... 덜 아프게 죽여준다고...
	나란히 서서 용수를 보며 웃고 있는 용택, 기택 쌍둥이들. 악마가 따로 없다. 극심한 고통을 이기지 못해... 기절해 버리는 용수.

#### 84. 광역수사대. 조직범죄수사2반. N

홀로 남아... 소매치기가 발생한 곳의 CCTV 녹화테잎들을 죄다 검색하는 대영.

(시간경과)

오랜 검색 끝에... 8억 원어치의 보석이 털린 남대문 귀금속 상가 근처의 녹화분에서...  
장미와 함께 얘기 종인 성수의 모습을 발견한다. (범행 장면은 아니다.)  
자세를 바로 고치며, 녹화테잎을 여러 번 돌려보는 대영. 표정이 변한다.  
시계를 보니 밤 10시... 잠시 망설이다가 비디오테잎을 가지고 밖으로 나간다.

#### 85. 타투샵 내실. N

장미, 비밀금고에 현금을 쌓고 있는데... 거칠게 초인종을 누르는 소리가 들린다.  
CCTV 쪽으로 가는 장미. 현관문 앞에 서 있는 대영의 모습이 보인다.

(시간경과) 나란히 소파에 앉아 테잎이 재생되는 TV 화면을 응시하는 장미와 대영.  
장미, 시큰둥한 표정으로... 별일 아니라는 듯... 리모콘으로 꺼버린다.

- 백장미** 예전에 알던 녀석인데... (목걸이를 들어 보이며) 이거 사러 갔다가... 우연히 만났어요.
- 조대영** 당연히 아는 사이겠죠. 근데 무슨 얘기를 저렇게 속삭이셨을까...
- 백장미** 요즘 명동이랑 동대문 쪽 쓸고 다니는 애 같아서 슬쩍 떠 봤는데... 아니더라구요.  
조형사님... 생각해서... 그런건데.... 섭섭하네요...
- 장미, 담배를 입에 물더니... 탁자 위 들풍 라이터를 집으려 몸을 뻗는다.  
대영 보면, 귀와 하얀 목덜미... 도드라진 가슴골... 매혹적인 장미의 옆모습.
- 백장미** (담배에 불을 붙이려다... 대영을 돌아보며) 그런데 수사도 좋지만... 이렇게 늦게...  
혼자 오신걸 보면... 저한테 따로... 하고 싶은 얘기가 있으신 건 아닌가요?
- 조대영** (마음을 들킨 것 같아... 화들짝 일어나며) 할 얘기... 다했어요. 그만 가볼게요.
- 백장미** (따라 일어서며) 조형사님... 보여 드릴 게 있어요.
- 바로 옆, 커다란 테이블 위에 고급스런 문신 도안들이 펼쳐져 있다.  
장미, 그 중 호랑이 문신 도안을 꺼내... 대영에게 보인다.
- 백장미** 이거 어때요... 조형사님 한테... 어울릴 것 같아... 제가 직접 디자인한 건데...  
보면, 금방이라도 도안에서 튀어 나올 듯 포효하고 있는 호랑이.
- 조대영** 형사가 무슨 문신이에요. 마음만 받을게요. (문득 어떤 도안을 발견하곤) 이건 뭐죠?
- 대영... 장미를 스쳐 지나... 테이블로 가 어떤 도안 하나를 집어 듈다.
- 백장미** (어느새 대영 곁으로 다가와) 불교에서 전해 내려오는 천개의 손과 천개의 눈을 가진,  
'천수관음'이에요.
- 장미, '천수관음상' 도안의 아름다움에 흘려있는 대영을 스쳐 지나 앞에가 서더니....  
원피스 위에 걸치고 있던 얇은 카디건을 벗어 테이블 위에 놓는다.  
대영 보면, 장미의 허리 쪽이 둥글게 파인 원피스 사이로 드러나는 천수관음상 문신!  
대영, 백옥 같은 피부에 아로새겨진 천수관음을 넋 놓고 바라본다.
- 백장미** 천수관음은... 손바닥 위 천개의 눈으로 중생의 고통을 본데요.
- 장미, 몸을 돌려 천천히 대영 앞으로... 바싹 다가선다.
- 백장미** (자신의 손을 들어 보이며) 그리곤 천개의 손으로 중생의 고통을 구제한대요...

(손으로 대영의 눈가를 감싸며) 당신... 눈 안에... 괴로움이 가득해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장미의 허리를 감싸 안으며 키스하는 대영.

장미, 서두르지 않고... 조금씩 받아들인다. 둘은 서로를 탐nik해 나간다.

애무라기보다는 기 싸움에 가깝게 밀고 당기며, 서로를 압도하려 애 쓰는 두 사람.

대영과 장미, 격렬한 키스를 하다 오디오 앰프를 건드리면 울려 퍼지는 '녹턴' 20번.

그 아름다운 선율을 따라 격함에서 부드러움으로 서로를 탐하는 둘.

(시간경과) 섹스를 나눈 후... 침대 위의 대영과 장미.

아노미 상태인 듯... 명하니 천장을 바라보던 대영. 퍼뜩 몸을 일으키려는데...

**백장미** (순간적으로 대영의 허벅지 근처를 손으로 눌러 멈추곤 화상자국을 본다) 뭐예요?

**조대영** (시트로 하반신을 감싸며 벗치고 일어난다) 어릴 때... 난로 위 주전자를 들고 가다...  
엎어져 데었어요...

데면데면한 분위기를 벗쳐버리려는 듯... 성큼성큼... 샤워실로 향하는 대영.

대영을 보던 장미, 고개를 돌리다 거울 속 자신을 바라본다. 섹스 후, 더 아름답다.

(시간경과 - 인터컷) 샤워실. 쏟아지는 물줄기 아래 고뇌하는 표정의 대영.

(시간경과) 장미, 담배를 집어들다가 널부러진 대영의 바지 뒤축에 꽂힌 지갑을 본다.  
장미, 지갑을 꺼내서 본다. 첫 만남, 대영이 내밀던 경찰 신분증을 발견하곤 웃는 장미.  
그렇게 지갑을 넘기다가... 갑자기 놀라서 커지는 장미의 눈.

**백장미** 만옥 이모?....!!

지갑 안쪽에 꽂힌 사진... 어린 시절 대영과 만옥의 가족사진이다.

대영이 샤워실에서 나오는 기척에 잠시 망설이다가... 잽싸게 사진을 빼내 감추는 장미.

## 86. 타투샵 바깥. N

타투샵에서 나오는 대영. 고뇌에 가득 찬 표정으로 자신의 차에 올라타 출발한다.

맞은편에 주차되어 있는 차 안에서, 그런 대영을 죽일 듯이 노려보는 성수.

## 87. 복싱도장. M

이른 새벽. 선철, 쓰레기봉투를 들고 나오려는데 들어서는 대영.

**조대영** (보자마자... 대뜸) 대원고등학교 '박종팔'.... 한 판 뜨자...

- 김선철 짜식.. 형님한테 깨지더니... 철들었구나... 아침운동도 다 나오구... 좋지...
- (시간경과) 대영은 마치 맞기 위해 복싱을 하는 것처럼... 선철의 주먹을 다 맞는다.  
선철의 어퍼컷을 맞고 그대로 다운 되는 대영.
- 김선철 (내려다보며) 너... 오늘... 왜 이래? 복싱하는 사람 김새계... 건성건성... 씨바
- 조대영 (힘겹게 일어서며) 나... 백장미랑 잤다.
- 김선철 (벙 찐다) 아 이 미친 새끼... 식전부터 장난 까냐?  
그년이랑... 널 하고 싶어서... 드뎌 미쳤구나....
- 대영, 침묵한 채... 고개를 떨구고... 우두커니 서 있을 뿐이다.
- 김선철 어... 이 새끼 봐라... 진짠가 보네... (분노) 너 사람 새끼 아니다...  
(다가서며) 잘 막아라... 안 그러면 죽는다....
- 이번엔 선철이 대영을 죽도록 몰아붙이고 있다.  
대영, 가드까지 내린 채 선철의 주먹을 그냥 다 맞는다.  
또 다시 다운되는 대영. 그러면서도 자기모멸 때문에 웃는다.
- (시간경과) 나란히 링 위에 뺨어 천정을 응시하고 있는 대영과 선철.  
대영... 눈이며 광대뼈, 입술 할 것 없이 통통 부어 있다.
- 김선철 너한테 말로만 들었지만... 나는 그년이 무서웠다. 니가 다칠까봐...
- 선철, 링 바닥이 껴질 듯이 한숨을 내쉬면서 링 아래로 내려간다.
- 김선철 (링 위의 대영을 올려다보며) 씨바... 근데 생각해보니까... 니가 더 무서운 놈 같애,  
새끼야... 너는 사는 게... 왜 이렇게 복잡하나?
- 선철, 문을 열고 나가버린다.
- 조대영 (창으로 쏟아져 들어오는 햇살이 눈부셔서.... 눈을 감으며) 그러게...

## 88. 일식집 룸. D

- 손이 박살이 나서 기브스를 하고 있는 용수의 처참한 몰골을 보곤 분노하는 삼성파.
- 이원종 내 이렇게 될 줄 알았어... 이래서 냄비하고 일하는 거 아니라고... 선배들이 그런 건데...

매서운 눈초리로 원종을 노려보는 장미. 그러나 이번에는 원종도 질 기세가 아니다.

이원종      용택이 새끼까지 나와서 쌍으로 방방 뜨니... 이제 어쩔 거야?

최성수      (갑자기 품에서 칼을 빼내 탁자에 내리꽂으며) 쌍! 당장 쳐들어가서...  
                쌍둥이 새끼들... 아예 둘 다 같이 모가지를 끊어 버리겠어!

백장미      (성수를 노려보며) 오버하지 마.  
                오버하는 새끼들이 돌아다니면서 대한민국 죄 후지게 만들어 놓는 거야.  
                너는 특히 형사들 용의선상에 올랐으니까 더 조심하라구.

최성수      하룻밤 새... 형사하고 불어먹더니... 정보 한번 빨라지셨수...

장미와 성수.... 갈등이 극에 달한 눈싸움.

이원종      (그런 장미와 성수를 쳐다보며) 지금 뭣들 하는 거야? 이제 회사 문 닫을 거야?

백장미      (골치 아픈 듯 이마를 짚다가) 오늘은 일단 접고... 내일 이 자리에서 다시 만나.  
                냉랭한 분위기로 먼저 일어서 나가는 장미.

## 89. 만옥의 노점상. D

만옥, 포장된 선물 꾸러미를 만지작거리다... 사람 오는 기척에 돌아보면...

백장미      (씨익) 아줌마... 일인분에 얼마에요?

(시간경과) 떡볶이를 먹고 있는 장미. 무표정하게 쳐다보고 있는 만옥.

백장미      (문득) 맛있네... 근데 이모... 용수 아저씨가 당했어. 쌍둥이과 용택이 새끼한테...  
                장미의 말에 표정이 굳는 만옥.

백장미      이모, 한번만 도와줘. 마지막이야. 나 이번 주말 작업만 끝나면 회사 정리하고 일본 가.  
                명동 야당 새끼들한테 노배까지 다 바쳐놨어... 작업 못하면 회사 부도나.

강만옥      (파 썰던 칼을 도마 위로 확 내려치며) 나 손모가지 자르는 꼴 봐야... 그냥 가겠니?

백장미      (독기 어린 표정으로 돌변하며) 쌍... 누구는 짤짤이 해서... 7년간 옥바라지 한 줄 알아!  
                정말 이렇게 의리 없이 굴 거야? 그 잘난 형사 아드님 때문에 이러는 거야?

아들이라는 말에... 일순간 무너지는 만옥.

**백장미**      아들이 형사라고 유세 떠는 거야 지금! 하긴 누구 아들 아니랄까봐...  
                  아주 멋지게 잘 크셨어... 잠자리에서도 아주 죽여주던데...

**강만옥**      (흔들리는 표정 감추며) 장미야... 무슨 소리야? 이모한테 무슨 아들이 있다고 그래?

장미, 회심의 미소를 지으며 사진을 꺼내 내민다. 대영의 지갑에서 훔친 가족사진이다.

**백장미**      아드님 돌려 드려. 나랑 자고 나서 우리 집에 홀리고 갔더라고...

**강만옥**      !! ... 혀소리 하지 마. 우리 대영이는 그럴 애가 아냐...

**백장미**      (벌컥) 그럴 놈... 아닐 놈이 따로 있어?! 사내새끼들 다 거기서 거기지....  
                  이모도 알아? 아드님 허벅지에 화상 자국이 있던데... 어릴 때 주전자에 덴 거라며?

**강만옥**      (인내하던 감정 폭발하며) 장미... 너 이년... 죽여 버린다!

**백장미**      (소름끼치는 냉소) 흥분하지 마... 이거 다 이모한테 배운 거야!  
                  이모한테 엮여서 모가지 잘리고 폐인 된 형사.. 여럿 보면서 내가 컸거든...

자기가 쌓은 업이 결국 자기에게로 돌아온 것 같아... 부들부들 떨고 있는 만옥.

**백장미**      (다시 부드러운 표정) 이모... 쉽게 생각하자. 좋은 게 좋은 거잖아.  
                  딱 한번만 도와주면... 나! 이모! 이모 아들! 모두 해피 한 거야.  
(가려다 돌아보며) 혹시 해서 하는 얘긴데... (노점을 둘러보며) 만옥 땡볶이...  
                  누가 뭐해서 번 돈으로 차렸는지... 아드님은 절대 모르게 해.  
                  아드님 성질 내가 좀 당해봤는데... 알면 난리 나지 않겠어?

돌아서 가버리는 장미. 하지만 장미의 표정은 이내 쓰쓸하게 바뀐다.  
홀로 남은 만옥, 사진을 손에 쥔 채 사시나무 떨 듯... 떨고 있다.

## 90. 만옥의 방 내부. N

영등포 2평짜리 쪽방. 만옥, 소주를 마시며 사진 한 장 들여다보고 있다.  
보면, 색 바랜 대영의 흑백 사진. 사진을 보다가 내려놓고...  
싸구려 비키니 웃장을 뒤져, 뭔가 꺼낸다. 사진 속 대영이가 입고 있던 '배냇저고리'다.  
대영의 '배냇저고리'를 코에 대고 냄새를 맡아보는 만옥. 아기 적 냄새가 나는 것 같다.  
흐르는 눈물 줄기. 만옥, 울음소리를 삼키려... 배냇저고리를 입으로 앙다문다.

## 91. 광역수사대. 조직범죄수사2반. N

대영, 성수와 장미가 찍힌 CCTV장면을 오반장과 형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

오반장      장미 이년... 처음부터 수상했다니까... 대영이랑 막내... 지금부터 잡복 불어.

## 92. 타투샵. N

문을 열고 들어오는 장미를 누군가 뒤에서 강하고 빠르게 덮친다.

장미의 발밑으로 또르르 떨어져 구르는 테니스 공. 공을 본 장미의 놀란 눈.

그제야 남자는 장미를 벽으로 세차게 밀어 던진다. 남자는 쌍둥이 형 홍용택이다.

홍용택      (테니스채를 휘두르며) 내가 이걸로... 옛날에 백장미라는 년을 따먹었어요.  
그년... 참 쫀득쫀득 맛있더라고... 사업도 사업이고... 동생 복수도 복수지만...  
그 맛이 도저히 안 잊혀 져서... 혼자 왔거든.... 그때 어떻게 먹었더라?

테니스공을 튀기면서 다가오는 용택. 공포에 질려 저항하나 역부족인 장미.  
용택은 빠른 몸놀림으로 장미를 제압하고는, 테니스공으로 장미의 입을 틀어막는다.  
연이어 테니스채로 장미를 마구 때리는 용택. 장미의 눈에서 흐르는 눈물.

## 93. 대영의 차 안. N

장미의 타투샵을 향해 달리고 있는 대영과 막내형사.

## 94. 타투샵. N

바닥에 흥건한 피... 보면, 목에서 피를 흘리며 죽어있는 홍용택.  
시체 옆에 떨어져 있는 회칼을 집어 드는 성수. 난감한 표정의 장미.  
시체를 사이에 두고 맹렬히 눈싸움하는 장미와 성수.

최성수      (장미에게) 누님... 뭐해? (사체를 가리키며) 이거... 여기 계속 두고 뜯어 먹을 거유?

## 95. 타투샵. 외부. N

장미의 차 트렁크에 큰 가방(카고백)을 싣는 장미와 성수. 차에 올라타 금출발을 한다.  
골목을 나가는데 건너편에서 대영의 차가 진입한다. 딴 골목으로 급히 꺾는 장미의 차.  
대영의 차가 완전히 멀어진 걸 확인 후, 다시 차를 출발시키는 장미.

## 96. 타투샵. 외부. N

타투샵 문이 잠겨 있고 불도 꺼져 있다.

막내형사 어떡하죠?

조대영 일단 잠복 붙어보자고...

97. 양수리 인근 한강 유역. N

등산용 카고백에 구겨진 용택의 사체. 장미, 용택의 입에 테니스공을 쑤셔 박는다. 곧이어 장미, 무거운 돌을 옮겨 가방에 채우기 시작한다.

백장미 (지켜만 보고 있는 성수에게) 뭐해, 안 돋고?

성수, 묘한 표정으로 장미를 바라보다가... 가방에 돌을 가득 채운다.  
이윽고 지퍼를 닫고 자물쇠를 채운 후, 카고백을 물속으로 굽혀 빠뜨리는 성수.

최성수 (비열하게 웃으며... 갑자기 반말) 백장미... 이제 우린 한 배를 탄 거야...  
죽어도 무덤까지 가지고 갈 비밀을 함께 가진 거잖아... 그치?

그런 성수가 부담스러워지는 장미. 무섭기까지 하다.

98. 장미가 늘 사용하던 호텔 스위트룸. Dawn.

장미, 담배를 입에 물었지만... 불을 붙이지 않은 채... 계속 들풍라이터만 딸깍 거린다.  
창으로 쏟아들어져 오는 새벽 여명을 보다가... 핸드폰을 들어 전화하는 장미.

백장미 (일어) 모시모시... 테라지마 상.... 일 좀 서둘러야겠어요...

99. 명동의 일식집 룸. D

장미, 성수, 원종이 모여 있다. 밥을 먹고 있지만, 시선은 계속 문 쪽을 향해있다.

이원종 에이... 글렀어.. 오긴 개뿔이 와.

백장미 (짜증) 내가 온다면 오는 거야... 어디서... (하는데...)

드르륵 열리는 미닫이 문... 일제히 보면 쟁 모자를 눌러쓴 만옥 이다.

강만옥 장미야... 진짜... 딱 오늘만이다. 약속 지켜...

성큼 돌아서 나가는 만옥... 병 찌는 삼성파.

백장미 (만옥 뒷모습 보다가) 뭐해... 이모 안 따라가고...

100. 비 내리는 명동거리. D

일식집을 나온 만옥, 장미 쪽은 쳐다도 안보고 어디론가 간다... 따라가는 성수와 원종.

백장미 (멀어지는 만옥을 지켜보다) 이모... 미안해... 나도 어쩔 수 없네...

어디론가 전화를 거는 장미.

백장미 (핸드폰) 오반장님? 저예요... 백장미.

101. 타투샵 앞. D

비가 내리고 있다. 아직까지 잠복 중인 대영과 막내. 반장에게서 전화가 걸려온다.

조대영 (핸드폰) 예... 반장님... 예?... 예... 명동 밀리오레요... 네... 거기서 뵙게요...

막내형사 (시동을 거는 대영에게) 뭐래요?

조대영 백장미 제본데... 오늘 명동에 소매치기 애들이 뜬다는 정보야.

막내형사 거짓 정보 아닐까요?

조대영 (일전에 장미가 그랬듯이) 안 믿진다고... 안 가볼 순 없잖아.

급출발 하는 대영. 차가 떠나자 숨어서 지켜보고 있던 장미, 타투샵으로 들어간다.

102. 명동. 어느 건물 옥상. D

비에 젖은 대영의 얼굴에서 화면 빠지면.. 어느 건물 옥상. 비가 내리고 있다.

오반장 비가 내려서 우산 때문에 시야가 많이 가려질 거야. 긴장을 놓지 말고 집중해서...  
검거에 최선을 다 하자구... 만약의 경우 못 잡아도 좋으니까... 다치지들 말고... 알겠지?!

일동 (비장한 표정으로) 네!

103. 타투샵. 내부. D

비밀금고를 열어 재끼면 산더미 같은 현금 대신에... CITI BANK 통장 몇 개와  
일본계 채권 몇 장.... 그리고 달러가 있다. 여행용 가방에 담는 장미.

#### 104. 몽타쥬. 명동거리. D

- 비가 내리고 있어 우산을 든 사람들로 혼잡한 주말 오후 명동 거리.  
챙이 깊은 모자를 눌러 쓴 만옥을 중심으로, 함께 걸어가는 삼성파.  
저마다 빠른 눈매로 오가는 사람들을 살피며... 범행대상을 물색하고 있다.
- 대영은 막내형사와 함께 거리를 오가며, 소매치기들을 찾아내려 시선이 바쁘다.
- 오반장... 홍형사와 함께. - 프랑켄... 윤형사와 함께.

#### 105. 명동 밀리오레 앞. D

삼성파, 일본인들이 바글바글한 노점상 앞에서 소매치기를 하고 있다.  
원종이 바람을 잡고 있는 사이, 만옥의 유려한 필 기술이 일본인들의 가방을 찢고 있다.  
조금 멀어진 곳에 위치한 성수... 망을 보느라 날카로운 시선이 쉴 새 없이 움직인다.  
때마침 지나던 대영, 일본 관광객들의 말소리에 돌아보다, 범행순간을 목격!

대영, 우산을 든 인파와 모자를 깊이 눌러쓴 만옥 때문에... 아직까진 만옥을 몰라본다.

조대영 (무전) 반장님... 때끼 놈들 떴어요. 네... 네... 밀리오레 앞 사거리...

#### 106. 명동 일대. 몽타쥬. D

- 오반장, 조대영의 부전을 받고 프랑켄 형사 일행에게 무전을 보낸다.

오반장 (홍형사와 함께 뛰며) 밀리오레 부근이라니까... 빨리 와... 모여서 한꺼번에 쳐야 돼. 뛰어!

- 오반장의 무전을 받고... 달려가는 프랑켄과 윤형사.

#### 107. 명동 밀리오레 앞. D

일본인들의 지갑을 찍쓸이 하고 있는 삼성파를 지켜보고 있는 조대영.  
모자를 깊게 눌러 쓴 기계가 지갑을 꺼내 바람에게 넘기며 뒤돌아보는 순간...  
대영, 모자 쓴 사람의 얼굴을 보게 된다. 자신의 엄마인 만옥이다.  
대영, 실망감과 분노에 몸을 떠는데... 작업을 마치고 철수하려는 만옥과 삼성파.

지금 안 잡으면 기회가 없다... 갈등 끝에... 막내형사에게 눈짓하고 쏜살같이 달려가..  
만옥의 손을 꺾어 수갑을 채우려는 대영. 놀란 만옥, 돌아보면 마주보게 되는 두 사람.  
분노에 찬 대영 표정에 비틀대는 만옥. 이때, 원종이 뒤에서 대영을 밀어 넘어뜨린다.

이원종

(멍하게 서 있는 만옥에게) 이모... 뭐해... 뛰어...

그 소리에 본능적으로 도망가는 만옥. 우산을 쓴 인파들 틈으로 사력을 다해 뛴다. 만옥을 쫓아 달려가는 대영. 도망가던 원종은 쫓아온 막내에게 격투 끝에 붙잡힌다. 건물 틈 사이에 몸을 숨긴 채로 상황을 주시하던 성수, 만옥과 대영을 쫓아간다.

108.

명동 밀리오레 인근 골목길. D

도망쳐 온 만옥... 좁은 골목길로 들어가... 건물 틈 사이로 몸을 숨긴다.  
조금 뒤에서 쫓아오던 대영... 인파들로 가려져 만옥의 행방을 놓친다.

만옥 시점으로 보면... 골목길 앞에서 두리번거리던 대영... 다른 골목길로 달려간다. 만옥, 대영이 사라졌음을 확인하고 조심히 나오는데... 골목길로 벽하니 들어서는 대영. 대영을 보고 놀라 뒤로 도망가다 쓰러지는 만옥. 기다시피해서 건물 뒤로 몸을 숨긴다.

조대영

(조금씩 다가서며) 어이... 강만옥 씨... 개 버릇 남 못 준다더니... 결국 또 이 짓거리야?

강만옥

(아노미 상태에서 혼잣말) 으... 아냐... 아냐... 대영아... 그런 게... 아냐...

그러는 사이 골목길로 조심스럽게 들어서는 성수.  
성수의 시점으로 보면, 수갑을 꺼내든 채로 어딘가를 보며 움직이는 대영.

조대영

그리고도 당신 풀에 엄마라고... 엄마흉내 내려고 그랬어?  
엄마는 뭐 개나 소나 다 하는 줄 알아?! 이제 와 늙고 병드니까...본전 생각나서 그래?

대영, 만옥이 숨어 있는 건물 틈 앞에 서면, 도망도 포기한 채 몸을 멀고 있는 만옥. 비는 더 세차게 쏟아지고... 성수, 잔혹한 표정으로 대영에게 접근하며 회칼을 꺼내든다 모든 걸 체념한 듯 수갑을 향해 손을 내미는 만옥.  
대영, 떨리는 몸과 손을 진정하며, 만옥 두 손에 수갑을 채우고 돌아서려는 순간....

대영을 향해 달려든 성수, 대영을 붙잡고 순식간에 칼로 복부를 세 차례 찌른다.  
비명을 토하며 쓰러지는 대영. 경악하는 만옥. 대영, 힘겹게 일어서는데...  
숨통을 끊으려 대영을 향해 다시 날아드는 성수의 칼날!  
그러나 그 칼은... 대영을 향해 몸을 날려... 온 몸으로 막아 선 만옥의 심장에 꽂힌다.

최성수

(놀래는 한편... 의아?) 이모... 왜 이래?.... 미쳤어?

성수, 다시 대영을 찌르기 위해... 만옥의 심장에서 칼을 빼내려고 하지만...  
만옥, 자기 아들을 또 찌를까봐 수갑 찬 양 손으로 칼을 못 빼내게 강하게 움켜쥔다.  
성수는 빼내려고 하고 만옥은 움켜쥐고 있으니.... 만옥의 심장... 갈같이 찢긴다.

강만옥 (고통에 일그러진 불분명한 발음으로) 우..리... 아... 드.. 르.. 한테... 그러지 마... 아... 흐흐... 하지 마.... 아... 들...

최성수 (만옥이 무서워져서) 뭐라고? 놔... 미쳤어? 놓으란 말야! 이러다 이모 죽어... 놔...

만옥, 성수를 보며 고개를 흔드는데... 고통 속에서도 얼굴에 희미한 웃음이 펴진다.  
바닥에 쓰러져 있던 대영, 사력을 다해... 성수를 향해 달려들지만 역부족이다.  
성수, 만옥에게 꽂힌 칼은 포기하고 대영을 짓밟기 시작한다. 비틀대던 만옥, 쓰러진다.

이런 지옥도를 뒤늦게 발견한 오반장과 홍형사, 소리를 지르며 골목길로 뛰어든다.  
도망치는 최성수. 도망가는 최성수를 맹렬히 쫓아가는 오반장.  
만옥과 대영을 수습하려 남은 홍형사, 피 칠갑이 된 채 널부러진 대영 일으키려는데....  
대영, 심장에 칼이 꽂힌 채 죽어가는 만옥에게로 기어가... 만옥을 감싸 안는다.

강만옥 (사력을 다해 의식을 차리며) 잘못... 했... 어... 미안... 해...

대영, 엄마 손에 채워져 있는 수갑을 풀어주는데... 그걸 바라보면서 의식을 잃는 만옥.  
대영, 온 몸을 떨며... 자꾸만 엄마를 일으켜 세우려고... 깨우려고 한다.  
만옥과 대영의 몸에서 쏟아져 나오는 피가... 빗물을 타고 바닥으로 강물처럼 흐른다.

#### 109. 명동 인근. 상가신축 공사현장. D

오반장에게 쫓겨 달려 온 성수, 비가 내려 공사가 중단된 한적한 공사장으로 뛰어든다.  
'위험', '접근금지', '관계자 외 절대 출입금지'이라는 표지판이 잔뜩 있는 곳.  
성수, 표지판 볼 새도 없이, 바리케이트를 넘어 죽자 사자 도망간다.

경비 (성수의 뒤를 향해 고함) 어이... 이봐요... 거기 들어가면 안 돼... 위험해!

연이어 뛰어드는 오반장을 발견하고 제지하는 경비.  
길길이 날뛰며 성수를 쫓아가려 하지만 이내 달려드는 경비들에게 제압당하는 오반장.

#### 110. 병원으로 향하는 앰뷸런스 안. D

응급용 침대에 누워 있는 만옥을 지켜보고 있는 대영.  
산소마스크를 쓴 채 힘겹게 버티는 만옥, 힘겹게 눈을 뜨더니 자신의 가방을 손짓한다.  
대영, 가방을 가져다주면... 만옥, 열라고 손짓하고... 보면 포장한 선물꾸러미가 나온다.  
만옥, 피 묻은 손으로 선물을 꺼내더니... 대영에게 가지라고 민다.  
대영이 받아들다 의식을 잃는 만옥... 심장박동 수치가 급격히 떨어지며...  
삐-- 하고 일직선을 긋는다... 절망 가득한 대영의 표정.

#### 111. 명동인근. 상가신축 공사현장 내. 일원. D

자신을 제지하던 경비와 함께 서있는 오반장의 시점으로 보면...  
'양생 중(콘크리트 굳히기 작업 중)'이라는 표지판이 곳곳에 붙어있고  
지하 터 콘크리트 바닥 기초공사 현장에... 콘크리트 늪 한가운데 빠져... 허우적대다...  
콘크리트와 함께 굳어... 죽어 있는 최성수.

< ACT 3 >

112. 김포공항 국제선 청사 내. 출국장 앞. N

TV 앞, 의자에 앉아 비행기 출발시간을 기다리고 있는 장미. TV에서 뉴스가 나온다.  
명동 사건의 속보. 조대영의 부상과 강만옥, 최성수의 죽음을 알리고 있다.  
경악... 슬픔... 죄책감... 두려움... 복잡한 장미의 표정.  
탑승 안내멘트가 들려오자, 출국장으로 걸어 들어가는 장미.

113. 출국심사대 앞. N

출국심사관 (여권을 확인하며) 백장미 씨? (모니터에 떠오르는 장미의 긴급수배 및 출국금지)  
잠시만요... 전산망 에러인거 같으니까... 잠시만 기다려주시겠어요..  
(전화) 에러! (서류를 보는 척) 음... 코드넘버 433023... 크래쉬! 응... 빨리 와서 봐줘.

전화를 끊고 올려다보면, 이미 어디론가 사라지고 없는 장미.

114. 병원 입원실. N

수액바늘을 손목에 꽂은 채 창밖을 바라보고 있는 대영.  
간간이 붕대로 감겨진 배 쪽을 손으로 짚으며... 한숨을 내쉰다.  
검은 정장 차림의 누나와 선철이가 들어선다.

조수현 왜 일어나 있어? 수술한데 덧나... 얼른 누워.

조대영 (끔찍 않고 창밖만 보며) 엄만... 잘 묻고 왔어?

조수현 응... 외할아버지 바로 옆에 묻혀서 엄마도 좋은지...  
무덤가 근처에서 엄마 옷 태우는데... 잘 타더라.  
(선철 가리키며) 니 대신... 선철이가 상주노릇 톡톡히 했어. 나중에 소주 한잔 사...

조대영 (그 말에는 일언반구도 없이) 누나... 난 아직도 뭐가 뭔지 모르겠어...  
나를 구하려던 엄마는 알겠는데... 소매치기를 다시 시작한 엄마는 정말 모르겠어.  
헷갈려서... 머리가 터질 것 같아...

조수현 (잠시 바라보다) 대영아... 이거... (하며 무언가를 건네는데... 대영 보면)

피가 말라붙은 포장지... 만옥이 아들에게 마지막으로 남기고 간 선물이다.

조수현 연락 받고 달려와 보니 응급실 간호사가 내밀더라.  
수술실 들어가기 전까지 니가 꼭 쥐고 있더라면서..

대영, 피 묻은 포장지를 쓰다듬다가 뜯는다.  
선물을 열어보면... 조그만 상자 안에서 째깍째깍 가고 있는 손목시계.  
행사들에게 잡혀가는 엄마에게, 시계 사오라고 소리를 지르던 어린 시절이 생각나,  
눈물이 그렇거리는데... 시계 아래 놓여 있는 한 장의 사진을 발견한다.  
사진을 보면... 대영의 지갑에 있어야 할 가족사진이다.  
대영, 아차! 하는 마음에... 시트 옆의 서랍을 열어 지갑을 뒤져보지만... 없다...

조수현 왜... 그래? 대영아...

대영, 의혹과 분노! 갑자기 손목의 수액주사바늘을 떼 내기 시작한다.

김선철 뭐 하는 거야? (나가려는 대영을 붙잡으며) 이 몸을 해가지고... 어딜 가려고 그래?

조대영 장미 년 잡아야... 나도 엄마 보러 갈 수 있어...

그 말에 선철도 대영을 말리지 못한다.

## 115. 강서구 방화대교 아래. M.

한강 수면 위에 떠 있는 바지선 갑판 위 대영일행이 무언가를 바라보고 있다.  
등산용 카고백을 열어 돌무더기를 파내고, 사체를 들어 한쪽으로 옮긴다.

감식반 건축용 토사를 채취하던 기중기 기사가 처음으로 발견했어요.  
사체를 살해 후 돌무더기와 함께 가방 안에 넣어서 강물 속에 던져버린 것 같은데...  
며칠 전 내린 홍수로 물이 불고 유속이 빨라져서 여기까지 떠내려 온 것 같아요...

오반장 (사체를 살펴보며) 사인은요?

감식반 자세한 건 국과수에 맡겨봐야 알겠지만... 목 경동맥 부근에서 출혈 흔적이 발견됐어요.

그러는 사이... 장갑 끈 대영, 물에 불어 부패된 사체를 이리 저리 살펴보고 있다.  
특히 입 주위가 많이 부풀어 오른 것 같아 입을 열어보다 테니스공을 발견한다.

조대영 반장님... 이것 좀 보세요.

모두들 대영이 지적한 테니스공을 살펴보는 사이... 다른 부분을 살펴보는 대영.  
대영은 사체의 허리띠 부분을 들척인다. 허리띠 안에서 발견되는 필.  
대영이 손에 든 필을 들여다보는 오반장과 형사들.

오반장      홍기택 새끼... 지 형 실종됐다고 방방 뜨더니... 예상대로... 소매치기 건이 확실하군...

116.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부검실. N

부검대 위에 놓인 사체를 보고 있는 대영 일행.

부검의      사체의 신원은... 홍용택이라는 49세의 남성으로 밝혀졌어요.  
부검 결과 사망원인은 경동맥과 다출혈이에요. (목 경동맥 부분을 가리키며) 특이한 것은 여기 경동맥 주위에서 '티타늄'과 '인디언 잉크' 등의 성분들이 검출 됐다는 겁니다.

조대영      티타늄... 인디언잉크라... 그게 뭐에다 쓰는 거예요?

부검의      뭐... 다른 용도로도 사용이 되겠지만... 보통은 문신을 새길 때 물감 재료로 많이 써요.

117.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영상분석실. D

특수영상장비 앞에 모여 CCTV 녹화화면을 보고 있는 오반장과 형사들.  
아파트 모델하우스에서, 청약하기 위하여 몰려든 인파들 사이를 돌아다니면서...  
선글라스를 끼고 머플러를 한 여자가 소매치기를 하고 있는 장면이 보여지고 있다.  
하지만 촬영된 거리가 멀고 화질이 나빠서 누구인지 명확히 보이지 않는다.

오반장      어제 부산 해운대에 있는 아파트 청약 받는 날... 찍힌 화면이야. 어제가 청약을 받는 날이라... 하루 동안 털린 피해액만 3억이 넘는대.

다음 화면. 모델하우스 한쪽에서 담배불을 붙이는 여자.  
직원, 형사들 별 반응 없자... 다음 화면으로 넘기는데...

조대영      (갑자기 뭔가 생각난 듯, 직원에게) 잠깐... 좀 전 화면으로 되돌려 주세요.  
(직원, 그렇게 하자... 대영 살펴보다) 여자가 손에 든 라이터만 확대해 볼 수 있나요?

직원, 포커스를 라이터 쪽으로 이동하면 확대되면서 드러나는 형태와 상표.

조대영      저 라이터... 백장미가 늘 갖고 다니던 듀퐁라이터예요.

118.      경찰 헬기 안. D

경찰 헬기 안의 광역수사대 형사들. 대영의 시점으로 내려다보면...  
헬기 저 아래로 바다와 부산 도심의 모습이 시원스레 펼쳐져 보인다.

## 119. 신선대부두. D

통역원 (일본말로) 주변에서 혹시 이런 여자가 밀항을 알아보고 다니는 걸 본적이 있나요?

'오야마'라는 일본상선 앞에서 일을 하다가 사진을 돌려보는 일본선원들.  
다들 모른다고 고갯짓인데, 그 중 한 선원이 나선다.

일본선원 아...

통역원 이 여자를 본 적이 있으세요?

일본선원 예... 좀 전에 이 여자가 일본으로 밀항 할 수 있는 배가 있냐고 그러더라고요...  
돈까지 주면서 하도 사정 하길래... 내가 선장한테 얘기나 해 본다고 했어요...  
내일 이 시간에 나랑 다시 만나기로 했는데...

조대영 (통역원에게) 뭐래요?

## 120. 다음 날. 신선대부두. D

'오야마'라는 일본상선 앞에 서 있는 어제의 일본선원과 선장.  
일각에 숨어 지켜보며 잠복을 하고 있는 오반장과 대영 일행.  
잠시 후 항구 쪽으로 들어오는 재규어 한 대. 긴장하는 형사들.  
재규어에서 내리는 여인. CCTV화면 때랑 똑 같은 옷에... 선글라스와 머플러.  
헤어스타일로 보나.... 키와 몸매로 보나.... 백장미가 확실하다.

대영의 시점으로 보면, 백장미... 선장에게 뭐라 하더니... 가방을 건넨다.  
오반장... 지시를 내리자 쏜살같이 백장미에게 달려가는 형사들.  
제일 먼저 달려간 대영... 백장미의 손목을 꺾어 수갑부터 채운다.  
비명을 지르는 백장미... 보면... 선글라스가 벗겨진 여자... 백장미가 아니다.

여자 (아파하며) 왜... 왜 이러시는 거예요?

조대영 당신 누구야....

(시간 경과) 허탈함이 역력한 대영 일행과 여자와의 대화.

여자 전... 일본인 관광가이드인데요... 관광객들 중에 섞여있던 한 여자가 와서 돈을 건네면서... 제가 만났던 선장님에게 이걸 전해주라고 하길래... 시키는 대로 했을 뿐예요.

- 조대영** (백장미 사진을 내밀며) 혹시 이 여자예요?
- 여자** 네... 네, 맞아요 이 여자...
- 여자** 여자가 선장에게 건넨 가방을 열어보는 대영.  
가방 안엔 일본 고양이인형이.... 자동으로 손을 흔들며 웃고 있다.
- 오반장** 장미 이년... 감히 우릴 갖고 놀아?
- 대영, 한숨을 내뱉으며 바다로 시선을 돌리는데... 요트 몇 척이 떠다니는 게 보인다.  
번뜩이는 대영의 눈빛. 뇌리를 스치는 기억.  
장미의 침실에 걸려 있던 초호화요트 사진이 떠오른다.  
요트 운전 자격증까지 보여주며 요트를 사는 게 꿈이라던... 장미의 모습도 떠오른다.
- 121. 광안대교. 해질녘.**
- 질주하는 광역수사대 형사들의 차량. 대영의 차, 가장 빠르게 앞서 나간다.
- 122. 부산 수영만 요트장. N**
- 급박하게 도착하는 대영의 차. 요트들이 정박해 있는 곳을 향해 달려가는 대영과 막내.
- 123. 수영만 요트정박장. N**
- 장미의 타투샵에 걸려있던 사진 속 이태리 폐레티 요트다. 갑판 위의 장미와 테라지마.
- 테라지마** 미끼를 던져 수사망을 부두 쪽으로 돌리고... 그 사이 우린 요트로 출발한다.  
하하... 역시 장미다워.
- 백장미** (피식) 오사카에서 늦게 오시는 바람에... 숨어있느라 혼났잖아요.
- 테라지마** 입항허가 떨어지자마자... 바로 요트 몰고 달려 온 거야.
- 백장미** 수고하셨어요. (피던 담배를 바닷물로 던지며) 이제... 출발하죠.
- 장미는 조종실 안으로 들어가 시동을 건다.  
테라지마, 요트의 정박을 위해 끌어 놓았던 밧줄을 풀기 시작한다.  
장미, 조종관을 잡고 주위를 살피다... 달려오고 있는 대영과 막내를 발견한다..
- 백장미** (조종실에서 나와 다급하게) 테라지마상! 형사들이에요. 빨리요...

테라지마, 서둘러 마지막 밧줄을 풀어버리고, 요트 위로 올라가는데...

요트 정박장에 들어서는 대영과 막내형사.

장미, 급히 조종관을 잡고 요트를 움직이려 하지만...

한발 앞서 장미를 발견한 대영과 막내... 요트를 향해 달려온다.

요트를 후진해 정박장을 빠져 나오려 하지만... 대영과 막내가 더 빠르다.

요트를 포기하고 도망가는 장미와 테라지마.

대영은 장미를, 막내형사는 테라지마를, 쫓는다.

대영과 장미... 요트 위 갑판 끝에 선 장미에게 다가서는 대영.

조대영      백장미, 이제 다 끝났어.

백장미      과연 그럴까?

갑판 위에서 바다로 뛰어드는 장미. 혜엄을 쳐... 정박장 기둥들 사이를 돌아나간다.

대영도 뛰어들어 장미를 쫓지만... 어디론가 사라지고 없는 장미.

장미, 정박장 사이사이 박힌 기둥들 근처, 수면 아래로 잠수해 숨을 참고 있다.

그런 장미를 발견하지 못하고 혜엄쳐 지나는 대영.

한편, 요트에서 다른 요트로 건너뛰는 테라지마.... 따라붙는 막내형사.

테라지마와 막내의 격투가 벌어진다. 끝내 막내가 테라지마를 제압한다.

(시간경과) 잠수해서 수면 아래를 살피다... 숨을 토하며 수면 위로 올라오는 대영.

장미를 찾기 위해 두리번거리다... 주차장에서 차를 향해 달려가는 장미를 발견한다.

## 124. 수영만 요트장 일각. N

어느새 장대같은 비가 내리기 시작한다.

장미, 차에 올라타 운전해서 코너를 도는데...

대영의 차가 앞쪽에서 들어오더니, 차를 가로로 세워 길을 막는다.

차에서 내리는 대영의 손엔 총이 들려있다.

조대영      백장미! 내려!

장미... 차에서 내려 총을 겨누고 선 대영과 마주본다.

조대영      쌍둥이과 홍용택의 사체에서 티타늄과 인디언 잉크 성분이 검출됐어.

그게 어디 쓰이는 건지... 니가 더 잘 알겠지?

순간, 장미... 자신을 강간하려는 홍용택 목에... 문신용바늘을 찌르던 것이 번뜩 스친다.

백장미      그 새낀... 죽어 마땅했어.

조대영      그럼... 강만옥도 죽어 마땅했나? 꼭... 꼭 그렇게까지 해야 했어?!

백장미      만옥이모 일은 미안해... 그렇게까지 하려던 건... 아니었어.

조대영      백장미... 살인과 소매치기 조직 수괴 및 특수절도죄로 체포한다. 너는... (하는데)

백장미      조대영! 너... 나한테 할 말이 그것 밖에 없어?

조대영      (멈칫...) !!..... (애써 냉정) 너는...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으며 둑비권...

백장미      당신... 끝까지... 내 앞에서도... 형사구나...

조대영      (다시 차에 타려하는 장미에게 총을 겨누며) 멈춰!

백장미      (차문을 열며 자조적인 웃음) 여기서 멈추면... 뭐가 달라져?  
멈춰봤자 무기징역일텐데, 싫어! 구질구질하게 살고 싶지 않아.

다시 차에 오른 장미. 카오디오 재생 버튼을 누르면, 울려 퍼지는 쇼팽 녹턴 20번.  
장미, 차를 후진해 빠져나가려 하는데... 들이닥치는 프랑켄의 차.

장미의 퇴로를 막아선다. 장미, 일말의 망설임도 없이 후진기어를 당긴다.  
그대로 후진해 프랑켄의 차를 들이받고는 빈 공간으로 빠져나가려고 하면,  
이번에는 오반장의 차와 여러 대의 경찰차들이 다가오는 게 보인다.

사면초가. 자신의 뒤를 둘러싼 경찰차들과, 앞을 막아선 대영을 번갈아 보던 장미.  
문득 시선이... 대영 너머 바다를 향한다.  
이내, 입을 앙다물더니 차를 급발진 해 대영 쪽으로 몰고 간다.  
대영, 달려오는 차를 보며 허공을 향해 총을 발사한다. 1발... 2발... 까진 공포탄.

조대영      (장미의 차 쪽으로 총구를 겨누면서) 멈춰... 제발... 멈추라고!

탕- 3발 째... 실탄을 발사하는 대영. 그러나 장미를 비껴간 총알.  
장미의 차는 어느새 대영 바로 앞까지 들이닥친다.

백장미      (운전대를 꽉 움켜쥐며) 비켜... 제발...

차마 대영을 치지 못하고 다급하게 차를 비껴 나가는 장미.  
대영, 몸을 돌려... 자신을 비끼고 달려가는 장미 차를 향해, 나머지 총알을 발사한다.

탕- 탕- 탕-, 4발... 5발... 6발.

장미가 맞았는지 차가 크게 비틀대다가 가속도를 이기지 못하고...

제방 끝에 있던 빨간 등대와 부딪히며... 뒤집히면서 한 바퀴 돌더니... 바다에 빠진다.

순식간에 장미의 차안으로 푸른 바닷물이 차오르고...

총알이 관통한 장미의 머리 뒤에서 붉은 핏줄기가 피어올라 바닷물과 섞인다.

눈을 부릅뜨고 죽어가는 장미의 뇌리 속에... 과거의 기억 한토막이... 떠오른다.

## 125. 2000년. 남대문 시장 내 대도수입상가 내부. 몽타쥬. D

- 장미의 시점으로 보면... TV 화면에선 김대중의 방북을 알리는 방송이 나오고 있다. TV를 둘러싸고 있는 상인 한 무리... 그 틈에 끼어 있는 백장미.

장미의 시선으로 보면, 바닥에 핏자국을 남기면서도 앞으로 나아가는 형사의 뒷모습.

형사가 사라지고 나자 상인 무리에서 슬쩍 빠져나오는 장미.

- 엘리베이터 앞에서 멈추는 백장미. 땅-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사람들 사이에 섞여 있는 성수. 장미와 성수, 시선을 교환한다.

장미... 타려는데... 정원초과! 장미, 성수에게 손 짓 한 후, 내린다.

- 엘리베이터 안...성수의 소매 틈 사이로 미끄러져 내려오려는 피 묻은 회칼.

- 계단 쪽으로 이동하는 장미. 상가 코너를 돌아서다가....

1층 로비 참에서 오연수에게 불잡힌 만옥과 마주친다.

만옥의 손에 수갑을 채우고 다른 형사들에게 무전 하는 오연수.

태연하게 걸어가는 백장미. 만옥 역시 장미를 향한 시선을 얼른 거둔다.

- 장미, 뉴스를 보는 상인들 결을 스쳐 지나다가... 무언가를 보고 놀란다.

보면, 다른 소매치기 여자 한명을 끌고 가는 형사의 뒷모습.

장미, 형사에게 잡힌 여자를 보고 절망스러운 표정이 된다.

여자는 만옥의 동료 소매치기이자... 장미의 엄마인 '송애순'이다.

### 백장미

(몸을 숨기고 지켜보며) 엄... 마...

자기 엄마를 끌고 가던 형사, 오연수에게 체포된 만옥을 보곤... 멈칫한다.

그런 빈틈을 노리고... 송애순... 형사를 밀치며 도망을 친다.

그 형사, 명하니 서 있다가 오연수가 뛰라고 소리치자... 송애순의 뒤를 쫓기 시작한다.

## 126.

## 2000년. 대도수입상가 맞은편 골목. D

장미, 상가 건너편 골목길에 숨어... 빠르게 주위를 살피면...

자기 쪽을 향해 달려오는 송애순. 그 뒤에서는 아까 그녀를 놓쳤던 형사가 쫓고 있다.

백장미

엄마... 엄마!

송애순, 달려오다 골목길의 장미와 눈이 마주치는 순간,  
쾅!!! 달려오던 덤프트럭이 애순을 들이 받는다.  
차에 부딪히더니 공중으로 날아올라... 길바닥에 떨어지는 애순의 몸... 즉사했다.

형사들에게 붙잡힐까봐, 엄마한테 가볼 수도 없는 장미.  
덜덜 떨며 울고 서 있는데, 엄마를 쫓던 형사가... 엄마의 사체에 다가간다.  
송애순의 죽음을 확인하고 몸을 일으키는 형사...  
장미, 그제서야 자신의 엄마를 쫓던 형사의 얼굴을 멀리서나마 보는데... 조대영이다!  
엄마와 조대영을 번갈아 보다가... 울음을 터뜨리는 장미의 얼굴.

127.

수영만 요트장 일각. N

울음을 터뜨리던 장미의 얼굴에 겹치는... 현재의 장미 모습.  
오반장과 형사들... 바닥에 내려놓은 장미의 사체를 내려다보고 있다.

오반장

(장미의 표정을 보며) 지가 뭐 그리 억울하다고... 눈도 못 감았네.

처리반, 장미의 사체를 비닐백 안에 넣고 지퍼를 채우려 한다.  
대영... 처리반을 잠시 멈추게 하고는, 장미의 사체 옆으로 다가가 앉는다.  
대영, 장미의 눈을 감겨주다가... 뭔가를 움켜쥔 채 굳어있는 오른손을 발견한다.  
대영, 힘을 줘 오른손 폐보면, 언젠가 대영을 스쳐간... 장미의 듀퐁 라이터!  
대영, 라이터를 쥐고 일어서면... 비닐백의 지퍼를 올려서 사체를 들고 나가는 처리반.

대영, 구급차에 실리는 장미의 사체를 지켜보면서... 문득 라이터를 켜보면...  
달칵- 하는 소리와 함께... 붉은 불꽃이 일렁이는 라이터. F.O

128.

대영 외할아버지 무덤가. D

F.I 두 개의 무덤이 나란히 보이고, 그 앞에 대영 혼자 앉아있다.  
죽어서야 외할아버지 곁에 나란히 묻힌 강만옥.

조대영

(만옥의 영정사진을 들여다보다) 엄...마...

너무 늦게 부른 것 같아... 서러워 운다. 울음소리를 막으려 주먹을 쥐고 입을 막는다.  
그러나 켜켜이 쌓아 두기만 했던 슬픔이 봇물처럼 터져 울음이 그치지 않는다.  
민들레 홀씨 하나가 날아와, 만옥의 영정사진을 스치며 하늘로 날아오른다.

129.

대영 갓난아기 시절. 서울 동대문구 전농동. D

하늘에서 내려 온 민들레 훌씨를 따라... 정경 보여 지면... 전파사 앞 스피커에서...  
<심풀맨> 전주와 함께... 당시 최고의 인기를 구가하던 김기덕 DJ의 목소리 들린다.

김기덕      두시의 데이트... 오늘 첫 곡은 레너드스키너드의 심풀맨을 골라 봤습니다. 자신의 아들이 어떤 사람으로 자랐으면 좋겠다는... 세상 모든 어머니들의 소망을 담은 가사가 예술이죠... 전설적인 명곡 <심풀맨>입니다.

<심풀맨>이 울려 퍼지는 전파사 옆 느티나무 아래 평상에서...  
젊은 시절 만옥, 간난아가인 대영을 재우고 있다.

강만옥      (나지막하게) 자장자장... 우리 대영... 자장자장... 잘도 잔다...  
검등개야 짖지 마라... 꼬꼬닭아 우지마라...

만옥을 스치며 날아가는 민들레 훌씨... 다시 하늘로 솟아올라... 어디론가 떠난다. F.O

- The End -